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겸 주간 전태현
편집장 강민홍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인쇄인 송재봉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57호 1995년 12월 4일 (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지면안내

3면(심층보도)
양캠 총학생회 선거평가
이번 선거는 후보간의 쟁점 부재속에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4면(학술기획)
달라진 정치지형, 이후 어디로 갈것인가 ③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중정당의 상과 과제를 진단한다.

5면(학술정보)
중동민족주의의 배경
최근 라빈총리의 암살로 재조명되는 중동평화 민족주의 배경을 알아본다.

6면(생활문화)
노천극장을 이고 사는 사람들
87년 학원민주화투쟁으로 설립된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지하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들어본다.

7면(문화)
우리문화 살리기 ⑥ 총괄

일제 잔재인 군사정부의 통제와 겸열은 건강한 문화민주주의를 파괴시켰다.

8면(사회보도)
용인 쓰레기 문제
용인은 얼마전 소각로가 가동돼 일반폐기물 소각은 실시됐으나 여전히 환경오염 요소를 안고 있다.

9면(사회기획)
전국대학 선거결과 분석
올해 전국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자주적 학생회 계열이 대거 당선된 원인을 분석해 보자.

10면(대학기획)
5·31 교개안을 진단한다⑥
교개안은 한국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 짜여져야 한다.

서울, 박성동·나인우 조 당선

총 1천5백66표로 40.8% 지지율 얻어

'희망의 실천, 생동하는 총학생회'라는 기치를 내건 박성동·나인우조는 "7천3백 외대인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한승주 기자

96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가 기호 2번 '희망의 실천, 생동하는 총학생회' 박성동(상경·경영 4)·나인우(동양·이란어 3)조의 당선을 알리며 막을 내렸다.

지난 28일(화)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선거 결과, 재적인원 6천6백18명 중 3천8백35명이 투표해 57.96%의 투표율로 작년 61.04%보다는 다소 저조한 양상을 나타냈다. 1천5백66표를 얻어 40.8%의 지지를 얻은 박성동·나인우 조는 1천2백44표를 얻은 기호 3번 박호진(사범·독교 4)·엄형식(서양·불어 4)조를 3백22표 차로 눌렀다.

한편 기호 1번 김윤식(서양·영어 4)·김현호(동양·베트남어 3)조는 9백49표의 지지를 받았다.

이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박성동군은 "외대의 총체적 문제와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남한사회 학생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며 7천3백 외대인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29대 총학생회장 하용갑(정책·행정 4)군은 "선거가 학생운동의 이념적 대립이 아닌 진정 외대발전을 고민하는 장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통역대학원 오늘(4일) 기공식

전문통역요원 산실

전문통역요원의 산실인 통역대학원 기공식이 오늘(4일) 서울캠퍼스 대학원과 어학연수원 건물 사이 신축부지에서 진행된다.

안병만총장 치사를 시작으로 열리는 기공식은 안전기원제를 비롯해 안총장, 법인전무이사, 통역대학원장 등의 시삽이 진행된다.

건축면적 3백50평, 연면적 1천5백30평 규모의 통역대학원은 2백50명 수용규모에 8개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국제회의실·교육용 동시통역실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부 한상빈씨는 "현재 학생들이 학업중이기 때문에 기공식 후 바로 착공할 수 없다"라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방학이 시작함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진 기자

학부제 시행세칙 '난항'

전공선택 기준, 최대 쟁점화

지난 10월 25일(수) 전체교수회의에서 학부제 도입이 결정된 이후,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등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도 계열 및 학부제가 시행되는 각 단대 학과장들은 △학부제 운용방안 △학과 및 전공 결정 △교과편성 △학생지도 등을 안건으로 지난 30일(목) 토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주로 연기된 것이다.

현재 가장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공학점 하한선 △타계열에서 전공할 경우 계열기초과목의 필수이수 여부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의 과 및 전공 선택 등이다.

또한 정원을 초과했을 때 전공선택의 기준여부를 성적총점으로 결정한다는 인문대를 제외하고 타단과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교무처장 장실(노어과)교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별 인원은 인문대와 자연대가 학과정원의 1백10%, 공대가 1백20%로 결정됐다.

또한 학부제 운용에 있어서 단일학부의 경우 학장이 학부장을 겸직하고 단대가 2개 이상의 학부로 된 경우 현 신임 학과장이 학부장을 겸임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2학년 진학시 결정되는 학과 및 전공의 경우 제1전공을 지학년에 주로 편성하고 제1전공의 변경은 매학년 말 가능하나 단과대내 전공 상한인원 범위내에서 주임교수와 학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학부

등록금 인상률 15%상회할 듯

'인상근거' 둘러싼 마찰 불가피

내년도 등록금이 15%인상선에서 각 대학별로 자율책정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학부제 실시와 97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대종평) 등으로 인해 본교 등록금 인상율이 15%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등록금 인상근거'를 둘러싼 대학당국과 학생측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80여개 대학 기획실장(처장)은 지난 11월 28일(화) 모임을 갖고 교육여건 개선과 물가상승을 근거로 15%인상을 결정했다.

이와관련, 서울캠퍼스 예산과장 윤영모씨는 "15%라는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 제30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박성동(상경·경영 4)군은 "대학당국은 학부제로 인한 교수충원, 대종평으로 인한 시설 투자 등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을 합리화 시키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의 법적 소유자인 재단의 전입금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곽근영 기자

빈의자

간첩퍼즐

▲최근 간첩이 잡힌 일이 있다.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시청률이 꽤 높았던 노씨의 '눈물짤끔쇼'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간첩사건 이후 한달간 약 60여명의 재야인사들이 간첩혐의·국보법위반 혐의 등으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안기부는 11월 5일 민족회의 조직부장 함운경(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씨의 구속을 서곡으로 모래시계 세대의 대표격인 전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 새정치국민회의의 하인회씨를 비롯해 반정부적 성격을 띤 재야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였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지자제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5·18문제, 비자금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대로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뭔가 기회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 중 첫번째가 노태우 카드였다. 5·18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의 반정부·반민자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현 정부는 과감히 노태우를 희생시켰다. 구속까지 해가며 민심을 달랬다.

또 하나는 홀로 꿋꿋하게 반대해오던 5·18 특별법을 제정토록 지시한 것이다. 5·18문제를 대충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정부는 국민들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끝까지 외면했을 경우 여론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정치권에 대한 사정·당명 변경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현재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안정국 조성이다.

▲간첩사건을 터뜨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일은 정권의 위기때마다 수없이 사용돼 왔던 진부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효과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정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재야인사를 비롯한 많은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들임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해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적 술수들이 얼마나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지금은 정치적 술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정책으로써 정권창출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병권

한총련, 제2차 동맹휴업

특검제 도입 등 요구

지난 24일(금)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지시가 있은 후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특별법안 제정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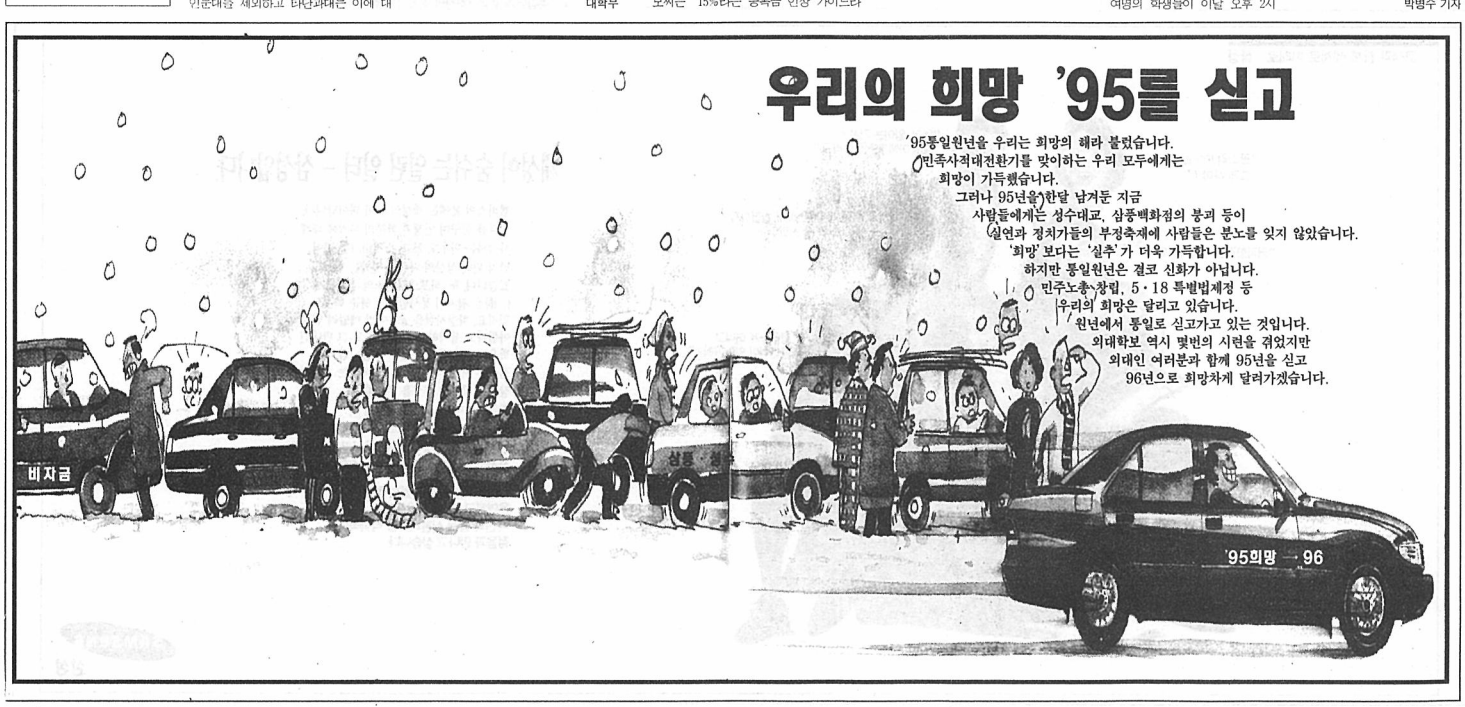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1백여개 대학 학생들은 지난 12월 1일(금) 특검제 도입을 위한 동맹휴업을 실시하고 거리시위를 진행했다.

본교 용인캠퍼스에서도 2백 50여명의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에 학내결의대회를 갖고 성남시에서 거리선전을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은 성남 미래준비위원회의 김태년씨 구속과 관련, 공안탄압 반대와 5·18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총련은 이날 이후 새롭게 구성된 총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관련 시국선언운동을 갖고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5·18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병수 기자



사 설

2천년을 향하여

지난 2년동안 우리 대학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사회의 변혁과 달리 일치된 공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우선 변화는 캠퍼스의 안정에서 나타났다. 일상화 되다 시피 만한분위기를 헤치던 교내시위와 소란 행위들이 지난 2년간 잠잠해졌다. 소란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열린총장실'로 가시화 된 대학당국의 노력과 이에 부응한 학생들의 호응의 결실이었다. 이런 결과로 서울·용인 양 캠퍼스의 면학분위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내적 분위기의 성숙과 함께 외적인 변화는 외대인 모두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서울 캠퍼스에는 제 1교수연구동에 이어 제 2교수연구동, 통역대학원 건물이 곧 들어서게 되고, 왕산 캠퍼스에는 신강의동에 이어 다목적 식당건물과 외국학종합연구센터가 세워지게 된다. 우리 캠퍼스에 일고 있는 건설 붐은 체증처럼 앓고 있던 공간부족을 일거에 해결하고 연구 분위기도 더욱 고양시킬 전망이다.

더구나 '외국어 교육과 연구의 중심'으로서 동시에 '지역학연구의 본산'으로서 외대 중흥의 기치는 실용영어부 창설, 위성안테나 설치, 시청각기자재의 확장, 컴퓨터망의 구축, 외국문화연구소 개설 등의 제도설비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번역문학총서 발간, 주한 외교사절초청 특별강연 등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실행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대의 중흥을 위한 재원도 내실있게 마련되고 있다. 총장을 위시해 많은 외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정부와 재계로부터의 지원이 확보되고 있고,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동문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대학당국에 대한 학부형들의 기대와 신뢰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외대중흥'의 기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은 섣부른 낙관과 이에 편승하려는 무사안일이다.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대학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진다해도 부정적 자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학교 발전은 커다란 암초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수비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 수성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로이 시작한다는 자세로 학교를 육성하고 경영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당국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끌어모아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하는 적극적,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들도 나자신보다 먼저 학교를 생각하는 적극적 애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된다.

지난 2년간 우리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구성원간에 크고 작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기주의와 편의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입시 관리처와 학부제 준비위원회다 해서 개혁의 조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학교 시설, 행정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편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부제를 위한 보안조치는 부처별로 완벽하게 공조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입시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사후대책이 연구된 적이 있는지? 재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방안은 연구되고 있는지?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전산화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과의 연결방안은 이미 마련해 놓았는지, 유연하고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학교조직이 단세포화되고 화석처럼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지?

2천년을 향한 노정을 몇 년 앞둔 지금 이시기는 향후 1백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간이다. 2천년대의 문턱에서 우리 대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총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오로지 학교를 위한 일념으로 2천년의 고지를 향하여 뛰어야 할 때이다.

뛰자, 외대인이여! 2천년을 향하여, 외대를 위하여!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라는 공동체 삶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OEDAE,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원고에 소속 과·학년·이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합시다.

본교 노래 잘못된 점 많아

새세대의 역사를 창조하며
여기 한 줄기 동방의 빛
온누리 비치는 외국어대학
〈외대 교가〉

우라 가는 이 길 험해도
조국 해방의 몸짓이라면
… 나의 사랑 외대여
〈나의 사랑 외대여〉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될 노래 두 가지. 하나는 교가이며 하나는 학생들이 지은 노래다. 잔잔한 분위기를 이루는 노래가 교가이며 밝고 힘찬 노래가 학생들이 지은 노래다. 그런데 두 노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가나 〈나의 사랑 외대여〉를 부를 때면 얼굴이 늘 찌푸려진다.

〈외대 교가〉에 있는 잘못은 '비치는'이란 말이다. 〈외대 교가〉라면 외국어대학이 동방에서 빛이 되는 존재다. 그런데 가사대로라면 외대가 밖으로 빛을 주지 못하고 받아 들인다. 지금 외국어대학교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서 〈외대 교가〉 노랫말이 이리 지어 졌는가? 잠깐 사전을 펼치자.

비치다 : 빛을 받아 환하게 되다
비추다 :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그래서 비치는 '외국어대학'이라 하면 동방의 빛인 외국어대학이 다른 곳에서 빛을 받아 환해지는 존재다. 그러나 외대 교가가 담는 뜻은 외대에서 밖으로 빛을 보낸다는 뜻이다. 본교 교육 이념은 바로 빛을 보냄을 말하고 있으니 어서 고쳐야 한다.

〈나의 사랑 외대여〉에서는 잘못이 들 보인다. '나의'라고 쓴 곳. 이곳은 '내'라고 써야 한다.

그리고 조국 사랑의 '몸짓'이란 말이 알맞지 않다. '몸짓'이라면 움직임을 말한다. 그러면 앞에 나온 '해방'이란 말은 '몸짓'이란 말이 살 수 있게 움직씨꼴로 바꿔어야 한다. 그리고 토씨 '의'를 그 자리에 쓸 수도 없다. 여기서는 토씨 '의'가 - '하다'라는 구실을 하는 셈이 되나 토씨 '의'는 이렇게까지 넓게 쓰이지 못한다. '해방의 몸짓'과 해방하는 몸짓'을 보자. 도대체 어느 말이 우리말이라 할 수 있는가? 〈나의 사랑 외대여〉를 힘차게 부르며 외대인이 힘을 모으도록 이끌고 힘을 불어 넣으니 참 좋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외대를 살찌우고 이끄는 노래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노래를 짓는 일은 좋으나 이왕 지으려면 좀더 애를 쓰고 생각하며 지으면 좋겠다.

최종규(서양·네덜란드어 2)

사람을 생각하는 총학생회로…

지난 11월은 이문동 전체가 선거의 열풍에 들썩거렸다. 과·단대 학생회장 선거와 그리고 96년을 책임질 이문동 최고의 일꾼을 뽑는 총학생회장 선거도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를 마치 정파의 세력다툼으로 간주하고 선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29일(수) 실시되었던 제30대 총학생회장 선거 개표 현장에서 이러한 나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는 훈훈한 모습이 펼쳐졌다.

개표가 시작되기 전 하용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회로 기호 1~3번 후보가 모두 단상에 올라서 다른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 또 하용갑 중앙선관위장의 제의로 모든 후보가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당선 발표가 있은 후 다시 모든 후보가 단상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모두가 밝은 얼굴로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당선자는 두 후보의 정책과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기호 1·3번 후보들의 구호와 자신들의 구호를 합친 "남한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는 운동권만이 아닌, 외대인 모두의, 사람을 생각하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다고 외치면서 두 후보들에게 앞으로 외대발전과 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지가를 부르면서 끝을 맺었다.

'전태일 평전'의 발문에서 장기표씨는 이런 말을 했다.

"전태일은 우리에게 투쟁을 가르치기 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에게서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진보적이 된다'는 명제를 배우게 된다"

진보의 목적은 다름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데 있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제30대 생동하는 총학생회도 선거의 모토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모든 진보적인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

제성훈(서양·러시아어 2)

합의사항, 추진 유도해야

이제까지 선배들의 학자투쟁 성과물은 많았다. 그러나 힘들게 이룬 대학당국과의 합의사항 중 많은 부분이 학생회 1년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구렁이 담넘어가듯 이행되지 않아왔다.

노천극장 지붕설치는 총장과 약속된 사항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착공은 아직 되지 않았다.

기숙사 카페테리아 설치는 현재 부처별 업무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방학중엔 반드시 완공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어문관 식당 완전개조도 방학중에 완공키로 약속된 사항이다. 과속방지턱 ,재시공은 내년 봄 교내 도로를 전면 재포장하기로 약속돼 있으며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자연히 낮아지게 된다. 도서관 장서확충은 특별예산 편성을 통해 용인캠퍼스 도서관의 장서가 대폭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신강의동에 열람실 및 어학실습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교무처 및 총무처장과 합의가 되었으나 실무선에서 추진을 거부하고 있다. 상층부에 더 강력히 이행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후생복지관이 완공된 후 현 서점이 이전되고 그 공간으로 취업정보실을 이전·확장하기로 되어있다. 이는 총장님과 총학생회장의 직접적인 합의사항이다.

일부 교양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수강인원을 80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되었다. 강의평가제가 실질적으로 실시되어 학생들과 강의실 개선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강의평가 설문지는 교수 개인이 참고로 한 후 자체 폐기한다. 이러한 사항만이라도 모두 이행되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학교와 학생회간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바란다.

이주열(인문·언어 3)

올바른 강의 평가제 정착 시급

대부분의 강의가 종강했다. 벌서 기말시험까지 본 강의도 있다. 학기말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학기말'하면 담장 떠오르는 것이 '기말 시험'밖에 없는 것이 그렇듯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끝날 무렵에는 일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주로 교수님들에 의해 그 형식과 내용이 결정되는 각 강의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그 강의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는 당연히 그것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몇년 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강의평가제'를 도입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속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켜가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작년부터 강의평가 양식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몇몇 강의에서 시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의평가가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짐으로써 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그나마 평가를 실시하는 과목도 빠듯한 시험시간에 짬을 내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성실한 강의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강의평가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아직 전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도적 보완장치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교수평가에 반영하여 인사나 연구비 지급 등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또 지난 9월 25일자 조선일보(9면)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에서 안병만 총장은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의 평가제를 적극 도입하여 그 결과를 교수들의 진급과 호봉에 연계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내가 관할부서인 교무처로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물어 봤을 때 교무처의 대답은 "그건 ... 아직 ..."이었다.

학교당국과 교무처가 약속한 대로 제도적인 강제력과 실효성을 갖는 강의평가제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만 자신의 강의를 평가받지 않으려는 안일한 교수들과 무성의하게 강의평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종국(서양·영어 3)

YS는 쇼걸! 정치쇼!!

백지 궤자보

주제: YS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는데…

- 달봉이-
대선 자금을 밝힌 다음 추진해라.
-강아지-

YS는 우리의 희망.
-경남고 동문-

너나 잘해!
-전·노-

좋은 일인데 무슨 속셈이 ..
-투덜이-

03이가 뭐야!
-Time반-

웃기지 마소 밥줄 끊긴 게.
-개그맨-

YS는 왕이 아니다.
-루소-

우린 희생양이다.
-노·전(?)-

5·18 관련자들 전원 구속되면 서울 구치소가 5공 청와대가 되겠구나!
-하하하-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시지!
-꿈꿈이-

연기 좀 제대로 해라!
-박광수-

독자만평

"YS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송근우(서학·영어 3)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개성이 숨쉬는 열린 일터 - 삼성입니다.

캠퍼스의 봄에는 개성의 꽃이 피어납니다.
칸트를 꿈꾸며 인생과 학문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학우도 있고, 스펄버그를 뛰어
넘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학우도
있습니다. 또,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답게
仁術을 펼치며 봉사활동을 하는 학우도
있지요. 학창시절을 공부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학우도 있고 그 반대인
학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젊음은 저 마다의 개성이 피어나는 시간이니까요.
삼성은 젊음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개성,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자신감 있는 젊음 -
삼성이 만나고 싶은 젊음의 모습입니다.

삼성은 개성이 살아있는 젊음,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갈 적극적인
젊음과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

□ 양캠 총학생회 선거 평가

쟁점부재 속 좁아진 학생회 입지

서울 학생회 변화 움직임 용인 힘있는 학생회 요구 분출

선거는 무사히 끝났지만 당선자들에게 남은 과제는 많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 극복·학부제 등에 대한 대안마련 등 이후 96년 총학생회가 넘어야할 산맥은 많다.

외대발전의 힘찬 포부를 안고 서울·용인 제30대·17대 총학생회가 출범했다.

각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했던 이번 선거의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전망을 그려본다.

서 울

3천8백35명이 투표해 작년 61.04%의 투표율 보다 다소 떨어진 57.96%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는 △좌파 주류질서의 전복자 △96 희망의 실천 생동하는 총학생회 △새로운 대학질서의 참조자 등 구호만 난무했을뿐 뚜렷한 쟁점이 없이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다.

변화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번 선거에 대해 올해 복학한 최강섭(법·법학 2)군은 "예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학생들도 무관심했고 또 정과간의 대립이 아니냐라는 인상이 짙었다"라고 투표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세팀이 참가해 과열 선거를 우려했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선거운동원들 간의 마찰이 적었던 탓에 기호 1번측이 유인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확인도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고, 선거 시행세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선관위 이종국(서양·영어 3)군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고려해 개입을 줄이고 3팀 선거운동본부의 재량에 맡겼다"라고 선거 운영방침을 밝혔다.

세 후보의 공약은 장기적인 외대발전상과 외대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내복지사안 △하부제 △교육과정개정안 등이 피상적으로 다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제 실시와 관련해 각 후보들은 도입과정상 졸속행정만을 지적할 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얕은 고민정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파격적인 문구로 관심을 끌었던 기호 1번 김윤식(서양·영어 4)·김현호(동양·베트남어 3)조와 운동권만의 학생회가 아닌 일반학생들의 학생회를 주장한 기호 3번 박호진(사범·독교 4)·얼형식(서양·불어 4)조는 현 학생회의 변화를 주장해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현 학생회의 계승을 표방한 기호 2번 박성동·나인우조는 이들 후보보다는 조직력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결과가 나타내듯이 방법과 내용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 학생회의 변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학생회 일꾼들의 고민점이 될 것이다.

용 인

'조국과 왕산을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호 2번 이재규(자연·화학 3)·나정환(동구·체코어 3)조가 1천2백표차, 70.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막을 내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기호 2번의 압승은 '학내복지'라는 양측 후보의 공통분모가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최근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올해 전국대학선거에서 △5·18특별법제정 △노태우씨 비자금 △민주노총 건설 등 정치·사회적 현안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소위 '운동권'후보가 대거 당선되고 있는 대학가 정세와 맞물린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가 나날이 다양화·구체화되면서 이를 담을 수 있는 '힘있는' 학생회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학생회 체계를 기반으로 한 기호 2번측의 '조직력'도 크게 작용했다.

선거기간은 올해 총학생회를 평가하고 내년 학생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학생회에 있어서 '중추적'인 시기이다. 그런만큼 16대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대중적으로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가 기호 2번측과 총학생회의 '대자보 논쟁'이라는 대결양상으로 번진 것은 올바른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폭을 좁힌 결과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선거운동초반부터 시작된 대자보 훼손, 잦은 시행세칙 위반, 이로 인한 양측후보간의 '신경전'의 한 단면이었던 각종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은 이번 선거가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했다.

또한 기호 1번측이 총학생회의 열쇠를 가지고 총학생회실을 드나든 것을 기호 2번이 예로 들며 제기한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도 '혼탁'선거의 한 단면이었다.

한편 이번 선거는 투표율 50%를 넘지 못한 것이 보여주듯 침체된 분위기였다. 이는 양측후보가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년과 별 차이없는 선전방법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기호 1번측이 시도한 컴퓨터 선전은 실효성은 없었지만 참신성에서 주목할 만했다. 또한 기호 2번측이 학생회관 로비에서 상영한 선전홍보물도 '모래시계'음악과 함께 서태지 뮤직비디오, 민중가요 등이 적절히 가미돼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재경·곽근영 기자

탈옥방지(?) 서울캠퍼스 후문옆 담장은 정문과는 달리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다. 뒤엉킨 철조망, 녹슨 철책이 대학건물임을 민망하게 하고 있다. 대학당국의 개선이 촉구된다. 정유정기자

□ 등투 제기과정 및 등록금 인상배경

수혜자 부담원칙… 등투 활시위 당겨

교수확충·시설투자, 인상 부추길 듯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1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8년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따른 수혜자부담원칙에 반발하며 7년간 진행돼 온 등록금 투쟁(등투)이 올해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등투의 '도화선'이 된 정부의 자율화 조치는 사실상 국가지원을 중단하고 교육비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담을 기존의 교육세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등투가 진행된 90년 11%, 91년 18%, 92년 15%, 93년 15%, 94년 11%, 95년 13%의 인상율과 90%에 육박하는 등록금 의존률이 여실히 증명한다.

지난해 대학당국은 등록금 책정자료에서 교원신규임용을 비롯한 인건비와 57억년 실천계획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충 등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인상근거로 들었다.

올해도 대학당국은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당국이 발표한 교육과정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교양과목의 다양화·실용영어, 내년부터 비어문계열에 도입되는 학부제는 대폭적인 교수충원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

또한 올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대종평)를 받는 한양대가 무려 22%의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발표, 각 사립대학들이 대종평을 앞두고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97년도 평가를 받는 본교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운 등록금 인상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국고보조금의 확충이다.

한편 지난 11월 28일(화) 전국 80여개 대학 기획실장 모임에서 올해 15%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둠으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는 '각대학의 교육환경과 재정에 맞게 등록금을 책정한다'는 등록금 자율화 조치의 본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타대학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한다는 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곽근영 기자

□ 서울캠퍼스 제30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박성동군을 만나

"정책생산·하부지도 강화하겠다"

지난 29일(수) 막을 내린 서울캠퍼스 제30대 총학생회 선거는 57.96%의 투표율을 보였고 기호 2번이 40.8%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에 총학생회장 당선자 박성동(상경·경영 4)군을 만나보았다.

- 당선소감은

= 값이 수고했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우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기쁨에 앞서 당장 내일부터 풀어야할 제2차 동맹휴업, 총학생회 이월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 30대 총학생회 건준사업계획은

= 집행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며 각 과·단대 상황이 열악하므로 내년 30대 총학생회는 정책·지도 단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 29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 등록금 투쟁, 5·18 투쟁 등 많은 일들을 했으나 의사소통구조가 막힌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이 아닌 상층단위의 의견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공약 실현이 가능한가

= 물론 자신있다. 30대 총학생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부제와 교육과정개정에 학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번 총학생회 선거를 평가한다면

= 선거가 무사히 치뤄지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 학생들의 반응이 적었다. 아직까지도 총학생회를 자신의 조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적은 것같다.

- 앞으로의 대학발전투쟁 계획은

= 학부제와 교육과정개정에 중심을 두어 대처할 계획이다. 29대 총학생회와의 이월 작업을 통해 9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대학발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앞으로의 총학생회를 운영하는데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7천3백 외대인을 믿으며 넉넉하고 겸손한 학생회를 건설하고 싶다. 또한 선거를 통해 나온 1·3번 후보들의 정책과 고민들을 받아안고 소화해 내는 실천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서울총학, 1차 수강신청유보 제기

교과과정 개정 학생참여 요구

선거와 맞물려 매듭됐던 학부제와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일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29일(수) 일방적 도입의 폐해와 더불어 대안마련의 부재, 학생참여 보장할 것인가? 라는 학부제와 교육과정개정안의 핫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1차 수강신청유보를 제기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참여 없이 독단적으로 행해진 교육과정 개정과 학부제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수강신청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걸 학생들에게 책임지우려는 대학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같은 행동의 배경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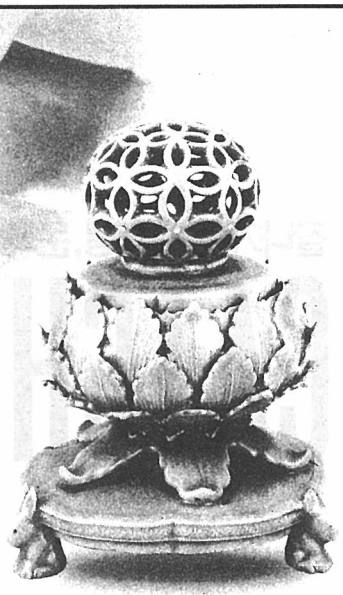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부전공 지정교과목의 범위 협소는 △구체적 시행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실용영어의 실시 △영어·일어·경제·경영·무역학과를 제외한 학과들의 부전공반과 전공반의 합반 △공개채용하지 않은 신입강사채용 △실용영어 수강대상에서 제외된 영어과와 영어교육과 △교양과목 폐강 문제 △달라진 재수강 절차 등이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는 방학동안 대학당국과 교무처를 상대로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여 학생들이 개강전이나 학기 초 수강신청변경기간에 개선된 교육내용에 의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정영윤(교육학)교수는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점 중에서 타당성있고 가능한 것은 시정하겠다"라며 그러나 1차 수강신청률이 높아야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대학당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학생참여를 배제한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학부제·교육과정개정안의 도입은 학생들의 불만속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제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오은진 기자

POSCO 메세지 종강편



장인의 그 마지막 손길에서
명품은 탄생되고...

목욕재계하고 처음 無의 흙을 만지던 그 손길과 그 마음 그대로
완성을 눈앞에 둔 그 순간까지 숨소리마저 죽이며
손끝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는 장인의 정성,
한치의 흐트러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장인의 마지막 손길에서
아름다운 불후의 명품은 탄생되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95학년의 종강 -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장인의 끝마무리 정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개강때 책을 펼쳤던 그 각오와 첫 노트를 정성껏 채워가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캠퍼스를 오르십시오.
성실한 마무리는 곧 힘찬 출발을 낳습니다.

천자정보투각합로
국보 95호 12세기 전반
국내산 모양의 봉발상에 앞선 와로와
옥나하형 대부에 정보계보의 투각 장식한
무경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보물로서
섬세한 장인의 솜씨와 애호흔이 담긴
불후의 명품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 달라진 정치지형 어디로 갈 것인가? ③

대중운동 · 정치이념으로 건설할 대중정당

생산현장 역량 규합 · 지역간부 발전 등 과제

글싣는 순서

1. 달라진 시대정세
2. 한국 정치질서 개편의 전망
3. 정치조직의 대안

정당건설을 고민하는 많은 청년 단체들은 96년도 상설적인 청년연대기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선진적 노동자 등 생산현장 청년들과의 연계가 아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실무능력과 간부조직화들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하다. 사진:길지

썩어가는 정치풍토로 회의와 정치적 불감증에 빠져드는 국민. 과연 한국의 정치는 더이상 갈 곳이 없는가.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아직 남아 있다.

본보는 지난 2회에 걸쳐 정치세력화 논의의 배경과 현재의 정치질서 변화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금, 이렇다 할 구체적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민민운)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중정당 건설은 그 당위성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 29일(수) 기독교회관에서 각계의 청년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상황의 변화와 청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참고해 이번 기획의 마지막 순서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새로운 정치조직의 제기 배경

최근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민운 진영에서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서재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2가지 배경이 있다.

첫번째는 87년 6월항쟁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상황의 변화이다. 87년 이후 한국사회에는 더이상 군사독재 정권이 존립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국민의 지지를 '표'로 확인하지 않고는 어떠한 세력도 집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중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6·27선거 이후 정치권의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민족민주운동이 새로운 대중정당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비자금 파동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추진세력의 대중기반이 급속히 강화됐으며 5·6공세력과 민정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기성정치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다종다양하게 발전해 온 민민운 진영에게 제기된 새로운 틀의 요구이다.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은 지난 10여년 간 학생회·노동조합·농민회 등 부문조직과 지역조직을 건설하고 이 조직들을 전국적인 통일전선으로 결집해 내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건설되면서 여러 대중단체들을 모두 포괄하는 연합조직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환경·여성 등 발전하는 대중운동의 요구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점차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운동을 지도할 중앙조직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이렇듯 달라진 정치상황에서 민민운 진영이 운동의 발전방향을 선거로 전환한다고 해도 기존의 조직형태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선거활동을 비롯한 제반 정치활동은 정당이 담당하고, 발전하는 여러 대중운동 조직들은 더욱 폭넓은 연합전선조직'으로 결합하는 방식의 질서재편이 요구된 것이다.

그러나 달라진 정세속에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그 논의가 모두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첫째, 민심의 변화가 기존 정치구조를 당장에 혁파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이 자체의 힘으로 96년 총선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역량이 형성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민주운동의 중심역량을 합법정당으로 편재하는 사업이 이런저런 논쟁과 정권의 탄압으로 제때에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권의 재편이 마무리된다면 지금의 호기가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대중정당의 상과 과제

그렇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중정당의 상과 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새로운 대중정당은 기성정당의 한계를 극복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환경·교통·교육 등 다양한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정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세변화와 선거결과에 따라 패를 지어 이합집산하는 정치가 아니라 처음엔 비록 작은 세력이라 하더라도 50년, 1백년 이상의 생명력을 갖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각 부문과 지역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중조직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건설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민족민주운동 전반의 논의와 합의가 추진과정에서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새로 건설될 대중정당은 정치적 기득권과 지분, 파벌, 불건전한 재정구조 등 기성정당의 병폐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중정당은 폭넓은 민주세력을 결집하여 건설하되어, 반드시 높은 정치적 통일성과 규율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과제

그러나 위의 조건들을 모두 갖춘 대중정당이 건설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첫째, 현재 정당건설의 주축이 되고 있는 청년단체들이 생산현장의 선진적 노동자(민주노총)나 지역운동을 벌이고 있는 농민회 등의 이해와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새로운 부문·지역운동을 고민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어, 각기 자신의 활동영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각계의 청년단체들은 96년 상반기 단일화된 청년연대기구의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단일한 정치조직은 부문과 지역대중 조직의 정치역량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참신한 역량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기구가 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것은 다양하게 흩어져 발전해 온 대중운동을 어떻게 올바른 정치이념과 철학으로 규합해 낼 것이냐라는 문제이다. 이는 민족민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는 문제와도 일치한다. 이것 역시 앞서의 단일한 청년연대조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부녀회, 시민모임, 청년회나 친목써클, 정치써클 등 다양한 대중조직을 이끌어갈 일꾼을 발굴하고 이러한 조직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말한 일꾼들은 기존의 대중운동에서 중견실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발굴된 청년 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 간부들의 통일된 정치의식을 담당해야 할 교육기관은 정기성과 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별 논의를 거치고 3·4개월의 준비과정을 통해 늦어도 96년 초 청년연대기구 건설과 함께 설립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당의 실무능력이다. 현재 2천년으로 설정되고 있는 정당건설의 실제적 가능성은 이를 고민하는 단체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당의 목표가 선거를 통한 일회적 의석확보가 아닌, 청년세력이 단결하고 지속적인 대중운동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적 정치풍토를 확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 봤을 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조직운동을 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진행중인 5·18대회 청년연석회의나 구상중인 6월항쟁 기념제 등 청년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국민에 의해 검토받아야 하는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한 우리의 자세

이제 얼마남지 않은 총선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다가오는 선거를 정당건설의 가장 유리한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속에 진행돼온 5·18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기존정당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줘야한다. 이는 소위 '3김시대' 이후가 되는 98년 지방선거와 2천년 총선에서 새로운 대중정당이 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중의 요구와 대중운동의 성과에 기반하여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개척하고 조직과 집단에 의해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단결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박현숙 기자

외국진보 정당의 사례③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남아공 민주화의 주역, ANC

인종차별 정책과 흑랜드

1994년 4월 아프리카민족회의(ANC:African National Congress)는 다인종 선거를 통해 62.3%의 득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의 새 집권당이 됐다. 이는 남아공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의미와 함께 민주화의 이행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3백50여 년에 걸친 소수 백인의 권력 독점이 종식되고 특히 뿌리 깊은 인종갈등의 근원이었던 아파테이트(Apartheid)정책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인종간의 진정한 화해창출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테이트는 전 인구의 13.6%에 불과한 백인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즉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정치·경제·문화·사회 등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흑인의 민족성을 가로막고 백인우월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1948년 전 백인의 우위를 주장하는 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흑인들은 의회 참정권에서 배제됐고 인구등록법을 통한 인종분류와 분리정책이 본격화됐다. 특히 흑인들을 영토적, 경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지역이종 고립정책인 '흑랜드' 정책이 시행됐다. 흑랜드 정책의 시행목적은 흑인들을 흑랜드에 정착시킴으로써 흑인의 재종족화, 흑랜드 내에서의 흑인들의 자체정부, 흑인의 노동자화, 도시흑인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인정권에 의한 아파테이트 수용과 심사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저항과 제재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인종차별법에 대항해 아프리카 민족회의(ANC), 범아프리카 민족회의(PAC), 남아공 공산당(SACP) 등 많은 저항단체들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1912년 창설된 ANC는 흑인저항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남아공 민주화를 위한 ANC의 저항 운동

인종차별에 대항한 ANC의 초기 저항운동은 간디의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에 영향을 받아 전개됐다. 그러나 1960년 경찰의 비무장 시위대 발포에 의한 '샤프빌' 사건 이후 급진대중활동노선을 정립, 무력투쟁이나 사보타지에 의한 저항운동을 전개했고 ANC의 무장투쟁은 80년대 중반까지 그 절정을 이뤘다.

이와 같은 양상은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화해무드와 동서분쟁의 종식, 소련연방 해체 및 공산주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세의 대변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제재는 실질소득의 심각한 마이너스를 기록, 남아공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1970년대 집권한 보타정권은 자유와 개혁을 표방하며 흑인들의 기대에 상응하는 듯 했으나 84년 인종별 3원제를 실시, 백인·흑철·아시아인의 3원제 의회를 구성하는 법을 제정하여 흑인의 국민으로써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함으로써 봉기를 야기시켰다. 이에 ANC는 평화적 방법으로는 아파테이트 정책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 폭력 사용 및 무력투쟁을 강화하였다.

1989년 드클레르크가 집권하면서 아파테이트 정책의 종식과 민주화 달성은 보다 앞당겨지게 됐다. 이와 같은 체제변화에 따라 ANC는 폭력사용포기와 정부의 정치범 석방, 반정부 단체에 대한 규제조치 해제를 전제로 드클레르크 정부와의 협상을 본격화하였다. 1990년 2월 27년간의 감옥생활에서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고 언론검열의 선별적 완화, 시설 사용의 차별법 폐지, 정치범 석방 등의 결과를 이뤘다. 1991년 아파테이트 정책의 완전철폐가 선언되고 ANC와 드클레르크의 국민당 정부는 동반자적 관계로 남아공의 개혁을 주도했다.

다인종 선거와 민주화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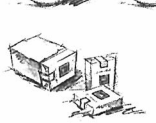
남아공의 민주화이행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었다.

92년 3월 백인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68.7%가 흑인의 참정권 인정을 찬성함으로써 민주화로의 이행이 더 가까워졌다. 이러한 변화에 ANC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만델라와 드클레르크는 이러한 변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의 노력이 94년 4월 다인종 민주총선거로 결실을 맺었다. 그 결과 ANC의 의장인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역사상 최초의 흑인 집권당이 됨과 동시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수립된 정부는 민주의회정치인 동시에 약 3백 50년간의 소수 백인통치를 마감하고 흑인 대통령 만델라와 백인 부통령 드클레르크를 중심으로 흑백 평화공존을 여는 민주화 실현의 주역이 됐다.

조 부 연
〈아프리카 연구소 연구원〉

그녀와 만나봤자 기껏…
(₩8,500=커피2잔)

배만 채웠다.
(₩8,500=짜장곱배기 2그릇반)


인기에 날아가는 8,500원
(₩8,500=담배 8갑반)

마셔봤자 몸만 축나는 걸…
(₩8,500=생맥주 1000CC 3잔 1/2)

2시간 즐겼더니 매진이네요…
(₩8,500=운동으면 입표 1장)

보고싶은 영화는 갈때마다 껍데기뿐…
(₩8,500=부자동네살면 겨우 비디오 4편)

1게임에 오천은 자체휴강
(₩8,500=당구 1시간 20분)

한달 120편의 최신영화가 TV로 날아옵니다

동아리, 과모임 뒷풀이 한잔 때도 직감에서 말한 한잔 까놓라 치면 손이 부들부들…
직감 빠듯한 나를 위한 그 무엇! 술 말고, 포켓볼 말고, 나이트 말고, 좀 영양기있는 문화생활이 필요했다.
영화라면 먹고, 자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나를 유혹한 한달 8,580원짜리 문화생활!

잘나가는 대학생, 문화비는 한달 8,580원?

CATCH ONE

TV 개봉관 캐치원—Ch 31

매니아를 위한 유료 영화전문채널 캐치원

한달 8,580원으로 헐리웃 5대메이저 영화사와 독점계약해 버렸다. 유료 영화전문채널 캐치원—
OK!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 유니버설, 윈트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헐리웃 메이저 영화사 작품들이 한달 120편씩 마구마구 TV로 온다.
TV개봉관 캐치원—내방은 시네마천국이다.

고객상담실 080-022-1231

□ 외대논단 - 중동 민족분쟁의 배경

반제·반이스라엘 외치는 아랍민족주의

시오니즘 차원 넘어선 팽창정책이 분쟁 불러

지난 11월 4일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PLO-이스라엘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극우파의 한 단원에 의해 피살되었다. 이 사건을 놓고 이슬람 개혁주의자들인 아랍 각국의 지도층 대부분은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 리비아, 이라크 등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아랍인들은 환호하였다. 이같은 환호는 아랍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한 결과이지만 시야를 넓게 보면 아랍 민족주의의 표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라빈 수상의 희생은 아랍 민족주의와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갈등과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아랍 민족주의 '까우미야'

아랍 민족은 원래 사우디 아라비아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였지만, 이후 무함마드에 의해 확립되어진 이슬람 종교를 매개로 하여 아랍어를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고 공통의 역사적 운명을 같이해 온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민족의 의미가 쓰이게 되었다. 즉, 아랍 민족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또 다른 민족주의의 의미는 현재 개별 아랍 국가의 국가주의 - 예를 들어 이집트 국가주의, 사우디 아라비아 국가주의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주의의 용어 - 이다. 이는 아랍어로 '야타니야'라 부르기도 하는데, 아랍 민족주의에서 총체적으로 같이 사용되는 민족의 용어는 '까우미야'라 구별하여 부른다. 다시 말하면 아랍 민족주의는 아랍의 총체적인 민족적 개념인 '까우미야'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총체적 민족의 개념에 바탕을 둔 아랍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한 후 아랍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서구열강의 독점자본주의가 대외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서구제국주의가 중동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발로 아랍 민족주의가 중동세계에 더욱 확산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이념은 영국을 위시한 서구세력에 대한 반제국주의 · 반식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아랍 민족의 각성과 부흥을 고취시키고 아랍 민족의 통일을 구현하는 역할을 했던 이념이다. 이후 아랍세계에 대한 외세의 간섭 거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유 등에 대한 반발은 아랍 민족주의의 의미가 공고히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아랍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아랍 ·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반외세 · 반제국주의 · 반이스라엘 등의 구호로 내세워진 대외적 표방이념이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주의 '시오니즘'

한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국가의 건설이라는 '시오니즘' 즉,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표방이래 1948년 건국을 이룩하였다. 이스라엘은 건국 후 2차세계대전 이래 강자로 등장한 미국의 후원 아래 미국 무기체계를 가지고 아랍과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을 전부 승리로 이끌었다. 이같은 승리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랍 ·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 다른 아랍의 영토를 획득하고 이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또한 팔레스타인 · 아랍인들의 피난지역인 가자지역과 요르단강 서안지역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같은 이스라엘 민족주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한다"는 본래의 시오니즘 차원을 넘어, 아랍의 영토와 자국의 안보라는 명분 하에 팽창적으로 나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 민족주의 갈등과 라빈 총리

이같은 아랍 영토의 이스라엘 영토 편입으로 아랍 지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을 시온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이다"라고 부르면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합법 · 불법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이같은 이유들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두됨과 동시에 아랍 ·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이스라엘 국가의 박멸을 대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았다. 또 한편 PLO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걸프전쟁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어진 자기 위상을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로 만회하고자 하였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아랍억압정책은 아랍측의 민족주의 강화와 테러를 유발시켰고,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해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암살당하는 사태를 나았다. 위 사진은 리비아 국민들의 반미 시위모습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비록 팔레스타인 문제의 미해결이 중동제패에 걸림돌인 것으로 여겨오던 미국이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PLO-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주선하고 체결케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이스라엘 라빈 수상은 당사자로 나서 PLO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의 이행단계 추진에 힘쓰던 중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하여 피살된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파는 "아랍 각국, 특히 PLO와의 화해는 이스라엘 영토의 보존과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와해시키는 시도이고 아랍 민족주의에 패배당한 것이다"라고 본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 극우파는 이스라엘 영토를 보존시키고 아랍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지키고자 테러의 방법으로 라빈 수상을 살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 민족주의 간의 갈등과 충돌로 라빈 수상은 희생양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주의의 핵심은 재산과 영토를 둘러싼 국가간 종족간 갈등이다"라고 간주한 존슨과 브레튼의 이론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에 어느정도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 상 문

* 〈본교 아랍어과 강사〉

명강의 찾아서 한국과학사(박성래 교수)

과학과 인간의 역사가 함께 하는 공간

과학기술과 역사는 어떤 상관관계를 지닐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물음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학사 수업을 들으면 이 물음은 아주 간단한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기술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어 과학이 역사발전에 기여한 것에 비해 사람들의 이해가 아주 부족합니다"라고 박성래(사학과) 교수는 이 강의를 하게된 이유를 밝혔다. 강의는 한가지 주제에 대한 학생발표가 있은 후 학생과 교수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 강의에서 박교수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순한 과학기술발달의 역사가 아닌 우리 민족과 나라의 발전에 과학기술이 어떤 기여를 해왔으며 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아울러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문제점의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학생들 스스로 찾게 하는데 있다.

지난 1일(금) 용인캠퍼스 인문사회대에서 진행된 강의시간에는 '일제하의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이뤄졌다. 이날 수업의 주된 내용은 식민지 시절, 우리 과학기술이 대중운동의 성격을 지닌 민족갱생을 지향하는 실력배양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었다.

이수미(인문 · 사학 3)양은 "처음엔 과학사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강의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을수록 과학사에 흥미를 느꼈고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돼 자랑스러웠어요"라며 앞으로 과학사를 더 많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과학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함께 진보하는 과학사, 이것이 이 수업을 듣게 하는 매력인 것이다.

박병수 기자

학술단신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공청회
구체적 개정안 · 결의문 발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산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개정위원회)는 오는 7일(목)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한미행정협정(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개정위원회는 2년여에 걸쳐 타국 협정과의 비교, 구체적인 사건 · 사례 등을 통해서 한미행협의 문제점을 연구해 왔다. 이에 개정위원회는 한-미 간의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미행협 개정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한미행협 개정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 본교 이장희(법학과)교수가 형사관할권 개정안을 발표하며 외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외교안보연구원, 사회단체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한미행협 개정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어교육연구소 · 외국문학연구소 학술활동 활발
학술회 · 서적 출판 등 잇따라

지난 3월 교수연구동 1층과 5층에 각각 외국어교육연구소와 외국문학연구소가 문을 연 후 학술회와 서적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국어교육연구소는 효과적인 외국어 교수 및 학습을 이루어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김광요(독일어과)교수가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교수 14명이 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한편 외국문학연구소는 세계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한국문학의 대외선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는 최근 세계문학총서를 발간하였고 학술세미나도 2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소장인 박철(서반아어과)교수는 "이번 학부제 개정에서 비어문계열 학과의 외국어 수업이 필수가 아닌 교양으로 돼었다"며 "타대학은 외국어를 필수로 하고 있는 반면 본교의 이러한 결정은 본교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며 학교당국의 재고를 요청했다.

외국어교육연구소와 외국문학연구소는 매년 논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여러 종류의 외국어 교재를 펴내거나 번역사업과 학술세미나 등 여러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랬다.

생활 속에서 3DO시스템

재미속에 감춰진 검은손

'폭로'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헬멧을 쓰고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영상세계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된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해 가상현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상현실'은 "헤드폰처럼 머리에 착용하는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출력장치(HMD)를 통해 3차원 영상을 보고 실제로 입체영상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의해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첨단기술"로 가능하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쥐라기 공원'이나 '폭로', '글로맨' 등 영화 속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상현실'을 영화에서 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주변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소위 '3DO 시스템'이라 불리는 기술을 이용한 '서바이벌 게임'이나 오락실의 입체오락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DO 시스템'이란 용어가 이러한 첨단영상기술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는데, 이는 LG전자에서 미국의 멀티미디어 전문 다국적 기업인 3DO사와 합작해 지난해 말 '3DO 프라자' 28개점을 개설한 데 따른 것이다.

"10대에서 40대에까지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찾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라는 대학로 3DO 프라자의 박진영(25)씨 말에서 알 수 있듯, 3DO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오락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1-2년 후에는 노래방처럼 대중적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3DO사와 손잡은 LG를 비롯 두산 · 벽산 · 쌍용 · 롯데그룹 등이 3DO 시스템으로 통용되는 첨단영상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이전이 아닌 빌려 사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향후 몇십년 간은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 등으로 소비하는 돈이 미국으로 나가게 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러한 영상산업의 시장규모는 4천-5천억원이고, 97년경에는 최소 1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 한다. 이 돈이 다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작년 우리가 무심코 봤던 '쥐라기 공원'으로 미국이 얻은 수익이 우리나라 자동차 1년간 수출액보다 많다 하니, '재미'에 앞서 3DO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

박재성 수습기자

배낭여행지로 좋은 유럽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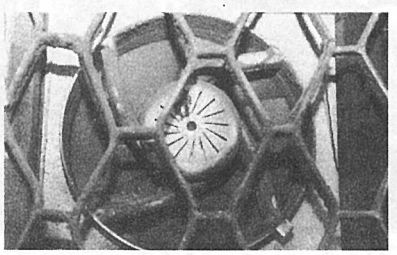
대한항공이 배낭여행자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21세기 큰하늘을 여는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 노천극장을 이고 사는 사람들

"해마다 동계훈련이죠"

환기·난방시설 등 기본적 생활요건 개선돼야



노천극장은 지난 87년 2학기 학원민주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물이다. 그러나 현재 노천지하는 환기·난방·화장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비좁은 교육공간 때문에 학교 다니기 힘든 이들 중에 손에 꼽히는 학생들이 노천극장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겨울을 가장 먼저 느끼는, 외대의 교육환경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노천극장 지하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노천극장 지하는 외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집약한 곳으로 일컬어진다.

"공간문제 땜방이죠. 기본적인 생활시설의 미련없이 이곳에서 대학생활을 즐기라뇨?"라고 김동어(법·법학 2)군은 노천극장 말을 꺼내자 마자 흥분한다. 이원(서양·스칸디나비어 1, 21세기철학사상연구회)군은 "제미나나 토론이 깊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멍해 몇 번씩 쉬었다 한다"라며 이곳의 환기문제를 지적했다. 노천극장으로 바람을 쐬러 들락날락 하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통기타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인 노래나래 회원 역시 "노래 하다 보면 기침이 자주 나와요. 목 버리며 동아리활동하는 거죠. 워낙 환기가 안되니…" 라며 호소한다.

뿐만 아니다. 국제관계연구회 방에는 환기통이 스티로폼로 막혀있다. 이곳 외에 몇개 동아리도 마찬가지이다. 대학당국은 자연환기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 기능은 미비된 지 오래고 겨울엔 바람만 솔솔 분다고 한다. 환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소박한 방법으로 우리말연구회와 국제관계연구회 등은 실내 '금연'을 강행하고 있다. 자구책을 마련한 동아리도 있다. 북도 쪽에 환풍기를 설치한 것이다. 이도 공기정화에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한다. 이한영(법·법학 4, 89)군은 "환기문제요!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들이 앓아서 난방, 환기, 책상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환기 문제의 심각성은 "3시간 정도를 지하에 있다 보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해 3시간 이상 있지 못한다"라는 말로 알 수 있다.

노천극장 지하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숨을 내쉬는 공기정화 말고 겨울이면 엄습하는 지하의 혹독한 추위이다. 건축 때 부터 난방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순간 느끼며 생활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환기문제를 들먹이며 석유난로를 못 쓰게 해 유일한 대안은 전기스토브죠"라는 한 학생은 "이젠도 뭐 동계훈련 시키는지. 단전을 밥 먹듯해요"라고 덧붙였다.

노천극장 단방문제와 관련해 관리과 직원은 "전기 휴즈 자동차단장치에 의한 단전이지 일부러 스위치를 내리는게 아니다"라며 "현재 상태로는 스팀시설을 구비하기는 구조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전력부족은 동아리 활동을 흐트러고 있다. 노래나래 한 학생은 잦은 단전때문에 전자악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화장실'. 큰 말썽고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 한 학생은 우스갯 소리로 "화장실 없는 건물에서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화장실이 없는 불편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노천극장 지하에서 생활하는 서러움, 불편함은 지천이었다. 자판기가 없다는 것. 조명이 너무 어두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호소하는 학생. 청소문제. 식수문제. 습기. 소음문제 역시 만만치 않게 오르내리고 있다.

노천극장은 지난 87년 2학기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성과물이다.

당시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캠퍼스의 공간문제 해법으로 캠퍼스 재배치가 함께 합의된 것이다. 노천극장 설립 등 캠퍼스 재배치에 필요한 때문이었는지 그해 등록금이 7% 인상됐었다. 당시 학생들과의 합의사항을 건성으로 이행했던 노천극장의 시설문제는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힘든 대학생활을 강요하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노천극장 용도에 관한 재고와 제2의 학생회관 건축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

이옥선 기자

□ 조교, 흔들리는 자리잡기

만능을 강요하는 조교제도

교수의 연구활동을 돕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함양을 높여가야 할 조교들이 업무와 보수문제로 인해 잦은 이직률과 조교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 조교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그들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본교 조교는 대부분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수강신청, 시험감독, 리포트 제출 이외에도 예비군훈련 통지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모과의 경우 하루 평균 20-30여통의 전화를 한명의 조교가 모두 소화해 낸다고 한다.

기자가 만난 조교들은 하나같이 재직 중에 대학원 공부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며 광범위하고 잡다한 업무로 인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지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정식직원과 같은 근무시간이지만 보수는 대학원 등록금과 같고 장학금 형태로 3개월에 83만원을 받는다. 즉 한달에 28만원이 못되는 실정이다.

한 조교는 "금전적인 것을 바랬다면 차라리 번역일을 했다. 조교직을 택한 것은 교수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후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며 "현지만 우리가 일한 만큼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라고 보수에 관한 배려를 당부한다.

실제로 서울대는 월 88만원, 건국대는 월 35만원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 지급한다. 조교들은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수강신청'과 '예비군훈련 통지'를 들고 있다. 본래 교학과와 비상기획관실에서 각각 담당했으나 학과 중심의 행정이 효율적이라는 명분으로 3년 전부터 각과에서 맡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학기까지 조교생활을 했다는 이모군은 "업무가 줄어든 교학과, 비상기획관실을 축소하고 대신 조교 수를 올리거나 보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연구의 활성화와 자신의 학문함양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조교들이 교수보조 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도맡고 있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른 대학의 조교개선안에 발맞춰 본교도 지난 학기부터 '수석조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석조교제도에 대해 교무과 윤경옥씨는 "경험이 풍부한 조교를 수석조교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이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잘해 줄 것이다"라며 "조교들의 보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학정원 80명 이상이고 기존 조교들 중 박사학위 과정의 조교가 있는 학과에만 적용돼 현재 영어과, 불어과 등 10여개 학과에만 국한돼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교는 '수석조교제도' 시행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 당사자인 우리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니 의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산에서는 각 대학마다 '조교협의회'가 결성돼 조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단체결성을 통한 권익찾기 방안으로 우선 서울대와 같은 정식직원 대우나 건국대의 학사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로 세분화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김태형 기자

생활시평

살아있는 방송을 바란다

MBC에 채널을 맞추어 놓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그 때 그 시절.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MBC가 텔레비전 시청의 기준점이었던 것이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상 텔레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의 시작이었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텔레비전에 한해서는 화제가 공유되던 그런 시절이었다. 최근 주춤하는 MBC의 신화가 깨어질세라 사람들은 못내 옛 향수를 잊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 기계적인 동작이 남아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MBC가 시청자들의 눈길에서 외면당하기 시작하던 시발점을 SBS의 '모래시계'의 방영에서부터로 잡고 있다. 그 후로 방영되던 드라마의 소재의 미약함과 비현실적인 사랑타령의 반복에 사람들은 "이제는 안되겠다"며 등을 돌렸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현재의 MBC에 대한 평가이다. 드라마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역사시간에 추천되던 방송이 '조선 왕조 5백년'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80년대 말 군부독재 치하에서 방송민주화의 봉화를 올린 건강한 방송인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들은 방송민주화를 선도하는 방송답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이는 단순히 세련된 영상기법이나 신선한 주제의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했던 것은 공정보도이며 우리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길 바랬던 것이다.

'나 이시람 믿어주세요'라며 정치인들을 풍자하던 코미디마저 입을 다물어 버린 채 지금은 시청자들에게 옛 향수만을 '되살려라, 되살려라' 주문을 외고 있어 짜증을 일으키고, 80년대 군사독재정권의 직접 간섭을 받던 KBS보다는 '좀 낫겠지'하며 뉴스를 시청하던 기대감마저도 사라진 지금은 아예 이젠 그만둬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기자들만의 코미디 풍자에서 관객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좀더 나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은 살아있는 방송을 바란다. 시청자들이야말로 가장 리얼리즘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옥선 기자

명수당 (明水堂)

□ 인도의 전통문화 지키기

힌두이즘, 인도 문화 융합의 토대

김 우 조
〈인도어과 교수〉

인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인도는 인종, 종교, 언어, 지형과 기후, 관습,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아주 다양한 나라이다. 인종전시장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다양하나 왜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졌던 다양한 인종들이 인도땅에 들어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실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융합되어 인도민족이라는 다양한 종족들이 기묘한 혼합체가 되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에는 인종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하는 위대한 흐름이 있어 '범인도'라고 할 수 있는 단일한 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인도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 사상적 토대는 힌두이즘이라고 할 수 있다. 힌두이즘은 단일 조직의 종교가 아니고 독자적인 신, 경전, 교의, 의식, 사원을 가진 수많은 교단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인도인들의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삶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힌두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 힌두이즘이 서로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이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생각 때문인 것 같다. 인도인들은 자신이 택한 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누구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고 다양한 다른 방법을 모두 존중하고 너그럽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힌두교의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 때문에 인도와 그 문화는 관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다양한 종족과 그 문화를 끊임없이 수용하면서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로 유지시켜 왔다.

통일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것을 수용하는 인도인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나의 집이 사방으로 탑을 쌓고 창문을 모두 폐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집에 가능한한 모든 땅의 문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집에 무면허 상인으로, 혹은 노예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로 인도인들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외래의 것을 수용한다. 인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근대적 사고의 소유자였던 초대수상 네루도 "새로운 것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옛것과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는 아직도 의식이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분야에서도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국악', 자기들의 옷을 '한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인도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거나 또는 들여보내서 녹일수 있는 것만을 수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처음에 얘기한 것과 모순되게도 인도인들이 배타적이 아닌것 같으면서도 배타적이라고 느낀 적이 많다.

포용성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던 인도. 그 인도가 90년도 이후 현 라오 수상의 계속되는 경제자유화되는 조치로 급변하고 있다. 냉전체제 속에서 제1세계에도, 제2세계에도 속할 수 없는 자립적인 국가의 자리에서의 주체성 찾기 위해 비동맹운동을 전개했던 인도가 소련 등 제2세계 자본주의 경제원리 속에 자신들을 편입시킨 신경제정책을 이틀에 만들지 시작한 냉전체제 이후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 그대로 가는 것이냐 지켜볼 일이다.

우리말속 일본말

〈17〉 지분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권리가 가지는 부분적인 소유권을 뜻하는 일본말로 우리말로 '몫'에 해당한다. '지분'은 '몫으로' 바꿔야 하겠네요. 예) "그러면 제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는 "그러면 제 '몫'은 어떻게 됩니까?"로 해야 한다.

우리말연구회

문화옹달샘

새 책

광주매일 '5·18' 특별취재반 지음

正史 5·18 上

광주매일신문이 93년 5월부터 장장 2년여에 걸쳐 5·18을 직접 몸으로 겪었던 11명의 기자를 동원하여 그간 축적된 자료를 총정리하고 항쟁 현장에서 새롭게 조사하고 발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민족사적 입장에서 5·18광주민중항쟁을 재정리한 책이다.

1부는 유신에서 12·12쿠데타에 이르기까지 5·18의 배경을, 2부는 5·18의 전개양상을 다루었다.

(주)사회평론·1만원

강덕수외 4인

러시아 언어학 연구의 방법과 모색

기존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돼 있던 러시아 언어학이 한국에서 체계적인 방법을 갖춘 학문 연구분야로 발전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을 비롯해 러시아사와 노어학사를 총 10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러시아 언어구조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내의 일반언어학자들에게도 유리한 책이다.

한시문학사·1만 3천원

이형준 지음

'95 올해의 좋은 소설

'95 올해의 좋은 소설을 대상으로 4편의 중편, 6편의 단편소설을 선정해 실었다.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 윤대녕의 '꾀아노와 백합의 사막' 등 진정한 문학성과 작가의 예술혼이 짙게 배어있는 좋은 소설을 작품의 완성도와 새로움의 상쇄도를 기준으로 선정, 소개하는 책이다.

현대문학·6천 8백원

진순신 지음

중국의 역사

우리가 지극히 관념적이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말해 주고 있다. 이상국의 모멸으로 살고 있는 삼황오제의 시대부터 모택동의 중국혁명까지 중국의 전 역사를 소개한다.

작가의 해박한 문화사적 지식과 중국고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독자한테 작가의 사관을 보여 주며 우리가 갖고 있던 중국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한길사·7천 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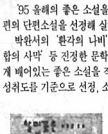
나그네 사랑 엮음

느낌이 있는 여행

PC통신 하이텔의 여행 동호회 '나그네 사랑' 회원들이 여행을 다니며 겪은 경험·느낌을 담은 책이다.

예국가의 배경이 된 황해산, 최 남단 마라도, 미시령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들른 그들만의 풋풋한 여행체험이 풍겨나온다. 교통편, 숙박, 불거리, 먹거리 등 여행자가 챙겨야 할 사항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 초보여행자에게 도움이 된다.

혜인·5천원



이형준 지음

할미꽃은 봄을 세는 슬래란다

'서편제'의 작가 이청준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동화책을 냈다.

손녀에게 전없는 사랑을 베풀어 자꾸 죄어지는 할머니와 그사랑을 먹고 자라는 온지의 이야기를 통해 아름다운 할미꽃의 전설을 들려주고 있다.

열림원·5천원

영상

돈을 갖고 튀어라

한 건달(박중훈)이 구 정치세력의 돈세탁 과정에서 수연히 1천억원이라는 돈을 얻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감독 김상진) 노태우씨의 비자금 보유과정과 흡사한 돈세탁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들을 무겁게 다루기 보다는 코믹한 인물과 상황설정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중 하나인 돈의 노예화 현상과 진정한 돈의 가치척도를 조명하고 있다.

개시판

96년도 문예아카데미 겨울특강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이론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서 96년 겨울강좌를 개최한다.

96년 1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열린다.

애니메이션의 감상과 이해, 힙과 저항의 음악, 불교 미술의 이해 등 다양한 부문을 세분화되고 심도 깊은 내용을 주제로 전개된다고 한다.

현대영화이론의 이해

영화이론과 비평에 관련된 강좌와 씨네마페고 운동을 꾸준동 전개해 온 '문화학교 서울'에서 영화탄생 1백주년을 마감하며 오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현대 영화이론의 이해'란 주제로 강좌를 연다.

총 6강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범시좌부터 포스트모던더니즘까지의 이론으로 밝시좋, 기호학, 정신분석학, 포스트모던더니즘 등의 영화에 인용된 이론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95, 96년의 새로운 영화읽기'를 주장해온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강사 이수현씨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문의: 595-6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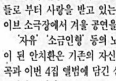
제12회 독립영화 워크샵

비영리 영화의 심의의무 규정이 권력적으로 영상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독립영화협의회가 '제12회 독립영화 워크샵'을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독립영화의 감상과 토론, 공동기획에 의한 독립영화 제작, 영상음악 등의 영상물 제작등을 실습한다.

또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 독립영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 준다.

문의: 278-0336



공연·콘서트

안치환 '95 겨울콘서트

노찾사 활동을 시작으로 출로로 변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안치환씨가 대학로 라이브 소극장에서 겨울 공연을 연다.

'자유' '소금인형' 등의 노래로 종더 친근한 얼굴이 된 안치환은 기존의 자신의 곡을 새롭게 편곡한 곡과 이번 4집 앨범에 담긴 신곡을 중심으로 무대를 꾸민다고 한다.

이 공연에서 그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노래한 '한다' 등의 곡으로 저항가요의 대표주자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준다.

왕산

구분 / 요일	면류	중식	석식
월(4일)	김치국수 (W800)	쇠고기볶음밥 (W1,200)	돼지불고기백반 (W1,200)
화(5일)	건국수 (W1,000)	김치김치찌개 (W1,200)	육개장 (W1,500)
수(6일)	해장면 (W800)	어묵해물탕 (W1,200)	만두국백반 (W1,200)
목(7일)	칼국수 (W800)	돈육비빔밥 (W1,200)	백죽 (W1,500)
금(8일)	백죽 (W1,000)	홍어삼합볶음밥 (W1,200)	카레라이스 (W1,000)
토(9일)		우거지김치국 (W1,200)	

(제공: 생활협동조합·총무처 후생과)

이문

구분 / 요일	A식단 1백식구	B식단 2백식구	C식단/석식 3백식구
월(4일)	동죽 김치볶음 (W1,000)	육개장 (W1,400)	오징어 덮밥 (W1,300)
화(5일)	해물잡탕밥 (W1,300)	두부된장찌개 (W1,300)	닭곰탕 (W1,400)
수(6일)	비빔밥 (W1,300)	순두부 찌개 (W1,300)	배춧 덮밥 (W1,300)
목(7일)	불고기 덮밥 (W1,300)	햄백 스테 (W1,500)	칠선탕 (W1,400)
금(8일)	볶음밥 (W1,000)	두부 오징어찌개 (W1,300)	김치김치찌개 (W1,300)

* 본 식단은 물품 수급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우리 문화 살리기
① 음악 - 산니머 산, 공륜
② 영화 - 영화진흥법
③ 방송-방송법
④ 출판-출판법
⑤ 만화-심의제도
⑥ 총괄

문화와 야만, 심의란 이름의 폭력

표현의 출발인 상상력 제한 … 일방적 길들이기

어떠한 법률도 행위이전의 생각이나 행동을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심의제도는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이 공륜의 사전심의제와 부딪친 기억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서태지의 팬들이 보여준 열띤 성원에도 그의 앨범은 '법적으로는' 불법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언론과 일반 사회인의 대화는 주로 이번 앨범에 실린 노래들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그 정도면 어떠냐?" 혹은 "컴백 홈 같은 노래는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 아니냐?" 등등. 이번 사태를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인 문화예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쉽게도 별로 '문화적'이지 못한 것 같다.

여기서 나는 아직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이 별로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상과 발인의 자유는 야만과 문화를 구분하는 지표이다. 때문에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제도(심의제도)가 존재하며 그것도 준국가기구에서 그를 담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반문명적인 수치스러운 일이다. 예술활동을 사전에 검열한다는 것은 표현할 권리의 알시적 제약의 차원을 넘어서 표현의 출발인 상상력을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길들이는 결과를 낳기에 더욱 위험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태지들의 앨범이 설사 '사탄의 음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사전에 검열하여 제약을 가했다면 이에 대해 마땅히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는 것이 나의 원론적인 생각이다. 가까이는 최근에 나온 가수 류금신의 앨범 중 '희망의 노래'가 반주로만 나간 것이나 지난 5월 '노동가요 합법음반'이 이번 서태지들의 앨범과 꼭같은 사태를 겪은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는가? 지금은 흘러간 옛노래가 돼버린 운동가요들이 불법으로 돌아다닐 때 그 음반의 제작자가 음반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문제는 내용이 아닌 제도이다. 내용을 들어 제도를 합법화하려는 일견 세련되어 보이는 논리들도 알고 보면 문화를 가장한 세련된 야만이다.

반민주적 지배질서 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술의 표현·발표의 자유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매체의 발달과 외국 대중문화의 엄청난 유입으로 인해 도덕·윤리적인 면에서 자유보다는 '자율'을 먼저 의식해야 하는 문화지형에 놓이게 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흔히들 퇴폐와 폭력, 음란성을 우려한다. 이것은 참으로 건강한 일이다. 그러한 우려 자체가 '문화인'의 증거이며 그것이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야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란 무엇인가? 야만을 스스로(自) 규율(律)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행위이전의 생각이나 행동을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런면에서 문화관계 악법에 못지않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 역시 야만적 법조항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연예술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되고(88년) 이번 국회에서 음반 및 비디오법도 개정되어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도 없어지는 등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그러나 정부는 영화법 개정안을 통해 어찌된 영문인지 사전심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예술의 창작과 보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법령들은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문화, 미술의 창작과 발표에 대해 아무런 법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출판, 전시 뿐만 아니라 공연과 흡사한 낭송회, 행위예술의 경우에도) 유독 이러한 장르에는 법이 개입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는 아마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공연법 제2조) "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듯하다. (영화의 상영이 여전히 공연의 범주에 들어있는는 사실, 그리고 기기의 발달과 보급의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음반과 비디오 혹은 여러 멀티미디어 매체와 컴퓨터 통신을 통해 책과 문학의 관계처럼 음악과 영화를 공연, 집단청취, 극장에서의 관람과 같이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오늘날까지 공연법에 의거한 공륜의 사전심의에 영화와 음반과 비디오물이 관련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법률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알게 해 준다)

이러한 법률들의 뿌리가 모두 일제의 식민지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들(극장취체법, 레코드 취체법, 조선 영화령)이라는 것과 그동안의 지배권력의 형태를 볼때 이들 장르예술에 대해서 자유를 주기보다는 통제하려드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여 참된 문화가 널리 퍼지게 하는 길은?

정태춘과 같은 민족예술 진영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음반법은 개정됐다. 특히 정태춘의 불법음반은 전형적인 정치적 문화투쟁이었다.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창작자와 수용자가 힘을 합쳐 민간단위의 문화권력을 세워야 한다. 정태춘과 서태지들 그리고 그의 팬들은 그 가능성을 일궈냈다.

정희섭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실장〉

□ 조작간첩사건 다큐멘터리 - '내가 너를 죄없다 하리라'

반공이 만들어 낸 '늑대'의 진실

이 영화는 나레이터 유인촌(탤런트)씨의 입을 빌려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조작극은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억울한 누명을 쓰며 주인공이 평생을 옥살이하는 영화를 보는 사람은 분명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와 같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보통사람으로 살다 조작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93년부터 이러한 조작간첩 사건에 관심을 갖고 각종 조사활동을 해오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내가 너를 죄없다 하리라'라는 16mm(42분) 기록영화를 만들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제작한 이 영화는 이전의 반공만을 부르짖던 편협한 시각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원양어선 선원이었다가 당시 있지도 않았던 도로와 버스를 타고 군사시설을 촬영해 조총련에게 넘겨주었다는 죄목으로 15년을 옥살이한 신춘석씨와 신귀영, 서성철씨, 17세에 밀항해 중거도 없었던 일을 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년째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강희철씨, 6·25참전으로 금성무공 훈장을 타며 반공주의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이장형씨는 결국 고문전문가 이근안씨에 의해 무기징역수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두 이 영화같은 현실을 담은 작품에서 소개된 사람들이다.

천주교 신자로서 그간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준 탤런트 유인촌씨가 나레이션을 맡아 영화의 신빙성과 대중성을 높이고 있다. 평폭적인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파괴되는 우리 이웃의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다. 주요한 세가지 상황을 위주로 이뤄진 이 작품은 이들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희생자들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분단', 그 치유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철저히 희생되는 인생들, 그들은 모두 올바른 법의 테두리 속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이 영화는 주장한다. 또한 이렇게 빈번히 자행되는 간첩조작사건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닌 나나 내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구입문의:777-0643)는 이 작품을 이장형, 강희철씨 등의 재심신청에 증거물로 첨부할 예정이며 우선 천주교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점차 대중들에게 이 사건들을 알릴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남균 수습기자

문 화 단 신

용인

'누리예' 제12회 정기 신인전 열어

지난 11월 29일(수)부터 12월 1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는 사진반 '누리예'의 제12회 정기 신인전이 열렸다.

95학번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된 이번 전시회는 '사랑'이란 주제로 생활속에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노인, 어린이, 강아지, 나무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로 전시됐다. 특히 사람이란 주제에 맞게 연인들에게는 즉석사진을 찍어주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회장 김태원(서학·독일어 3)군은 "초겨울의 쌀쌀함을 사진의 기묘한 세계속에서 외대인 여러분이 따뜻함을 느꼈다"며 전시회의 의의를 밝혔다.

서울

한교과 원어연극 '당신의 나라' 공연

한국어교육과 원어연극 '당신의 나라'(원작: 위험한 가게 1969, 기형도)이 지난 1일(금), 2일(토)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도시 근교 농촌에서 보여지는 소시민의 생활상과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각색과 연출을 맡은 조현우(2)군은 "절망과 죽음의 표현력이 뛰어나며 90년대를 시작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 기형도씨를 소개하고 싶었다"라고 이번 공연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신방과 영상제 열려

제4회 신문방송학과 방송학회의 영상제가 지난 11월 30일(목)과 1일(금) 양일간 사범대 영사실 210호에서 열렸다.

영상제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과 한·일 문제를 다룬 한 편의 드라마와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선보였다.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던 천소영(2)양은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양은 "편집기가 없어 편집을 비디오로 하는 등 기자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힘들었다"라고 제작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18회 서우회전 개최

제18회 서우회전이 11월 30일(목)부터 지난 1일(금)까지 교내 전시실에서 열렸다.

서울·용인 연합 동아리인 서우회는 지난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용인캠퍼스에서 전시회를 마치고 이번 전시회를 갖게 됐다.

주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해서체'를 비롯해 '행서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회장 서동현(상대·무역3)군은 "서예작품 감상은 글씨체나 그 내용이 중점 아닌 작품은 전체적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베트남어과 원어연극 진행

지난 1일(금) 대학원 311호에서는 제2회 베트남어과 원어연극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무대에 올렸다.

제2회 종합예술제 기간 중 열린 이번 행사는 원작인 소설 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문열씨의 작품이다. 50년대 이승만 자유당 시절 말기의 강원도 한 시골 학교를 배경으로 반장, 엄석대를 둘러싼 인물들의 행동, 심리를 당시의 시대상황에 빗대고 있다.

책걸상, 벽에 있는 낙서 등 무대세트가 돗보인 공연이었다.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우리 몸짓에 맞는 민족무예로 건강한 삶을

민족무예 '경당'

이승범
〈자연·전자공학 2, 민족무예 활터 부회장〉

21세기를 바라보는 요즘, 우리는 온통 회색빛 도시속에서 살면서 점점 대자연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각종 문명속에서 운동부족, 문질생활의 증요로 인한 영양과다,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는 사람들의 관계와 산업사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위기를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맞은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호국무술이었던 '24반 무예'를 소개하려 한다.

24반 무예는 조선조에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것으로써 검, 창, 곤봉 등의 24가지 병장기를 다루는 무예이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형성되어 구한말 구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 정규군의 호국무술이었고 한일합방전후에 일어난 의병투쟁에서는 직접적인 전투수단이었다. 이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정책에 의해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맥이 끊긴 24반 무예를 복원한 사람은 70년대말 유신시절 때 남민전 사건으로 10여 년간의 옥살이를 한 임동규(민무예도장 '경당' 대표)선생이다. 그는 1.7평의 감옥 안에서 '무예도보통지'를 연구·해석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의 교육기관이 바로 '경당'이다. 민족무예도장 '경당'은 그런 의미로 설립되었고 전국 각 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본국검, 제독검, 예도 등 검법이 주류를 이루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우리 몸짓에 맞는 동작이라 힘들지 않게 연마할 수 있다. 서울 캠퍼에서도 이른아침이면 '경당'이 있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다.

'경당'은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 어느때나 찾아와 땀흘릴 수 있는 곳이다.

파고다외국어학원

人材가 人材를 만든다.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 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26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PAGODA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합니다.
이 지구의 끝 남국섬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대국기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DO' 정신은 귀하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오르도록 힘껏 도울것입니다.

세계 4번째로 남국정 도보탐험에 성공한 한국 남국탐험대
사진 중앙이 고인경 탐험대장(본학원장), 홍성택 대원(본학원)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PAGODA

I CAN DO IT

영 어
- 기초영어회화: 기초영어 / SIDE BY SIDE·FIFTY-FIFTY / A CONVERSATION·LADO·COMMUNICATE
- 영어, 청취, 어휘/유학, 진학, 취업: TOEFL(L.C)/TOEIC(L.C)/GRAMMAR/Vocabulary READING/WRITING/GRE/GMAT/AFKN / 기초영문법·독해·청취·작문/발음교정
-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PAGODA→미국 위스콘신 WESLI / 2~4개월(1일 5시간교육) 2~4개월(1일 4시간교육) / 교육중 입학허가서취득 교육중 미국대학(원)(편)입학

최신영어특강프로그램
-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12명정원) 1일 1시간 1년과정/교수전원 미국인
- INTENSIVES.L.E.COURSE: 1일 2시간 주 5회/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교수법/최신교재 전원미국인
- INTENSIVE ENGLISH COURSE: 미국인 교수(석·박사)에 의해 1일 5시간 집중영어 교육 영어의 종합적(회화·문법·독해·작문)능력완성 4달완성 미국대학 공인 프로그램(주 5회 12명 정원)

일 본 어
-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 동경 일본어 독해/일본어 문법
- 스크린 일어회화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 일본인 회화 [초급 Ⅰ·Ⅱ·Ⅲ]
- NHK 일본어: 위성방송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청취

※교수 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출신

독·불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
- 독어강좌
- 프랑스인 불어강좌
- 중국인 중국어강좌
- 스페인어강좌
- 러시아 인 강좌 및 모스크바大: 1일 3시간 1주 5일,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大 입학

종로 274-4000 종로 파고다공원 앞 원 빌딩
압구정 3442-4000 압구정역 3번 출구 동모대교 끝
신촌 706-4002 이대 전철역 7번 출구 5m
강남 501-4002 강남 전철역 2번 출구 씨티빌딩

□ 몸살 앓고 있는 용인 쓰레기 문제

왕산의 쓰레기문제와 자연보호

맑은 물과 공기 지키기 위해서 해결 시급

용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들을 현재까지 정심대도비 뒤에서 소각·매립하여 왔다. 위 사진은 정심대도비 옆 쓰레기더미의 모습이다. 사진제공:외대기록문학회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멋진 경관으로 소문난 용인캠퍼스가 겉과는 달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1월 15일(수) 소각로가 가동돼 다소 부담을 덜었지만 '정심대도' 비 뒤와 대운동장과 주차장 아래는 쓰레기로 가득차 있어 폐수 발생,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본교 용인캠퍼스는 지리적여건상 학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정심대도 비 뒤에서 소각, 매립하여 왔다. 최근 몇년 전부터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용인캠퍼스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학내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학생, 학교당국, 교수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더이상 쓰레기를 정심대도 비 뒤의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그래서 소각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용인캠퍼스의 쓰레기 문제는 용인캠퍼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용인군과 직접 관련이 있다. 매립쓰레기를 해당관청이 처리해주는 서울캠퍼스와는 달리 용인캠퍼스의 경우 용인군에서 매립쓰레기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어, 본교를 비롯한 용인의 모든 대학들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군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종합시범센터를 8월말 완공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6개월 가량 늦어진 상태다. 용인군에 있는 매립장들은 올해말이면 완전 포화될 예정이라 폐기물종합시범센터가 최종 완공되는 2월까지 2개월 간 관청과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쓰레기로 진통을 겪어야 할 상황이다.

용인캠퍼스는 이렇게 용인군이 쓰레기를 처리해주지 못함에 따라 소각로를 건설하게 되었고 소각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난 14일(화) 부터 학내 1백여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분리수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용인쓰레기 문제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수거가 외대인들의 생활 속에 정착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직도 쓰레기의 6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운동장 밑에는 쌓인 쓰레기가 썩어가며 폐수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각로로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처리할지라도 용인캠퍼스의 환경은 계속해서 오염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병권 기자

□ 용인캠퍼스 생협 채근수(서학·불어 2)군을 만나

"자발적 분리수거가 환경문제해결 첫걸음"

왕산에 소각로가 설치되고 분리 수거가 실시되게 된 배경에는 교수, 직원, 학생들의 조사작업과 대안모색 작업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생활협동조합(생협)은 분리수거의 학점인정, 환경위원회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생협에서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채근수씨를 만나 보았다.

- 왕산쓰레기 문제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나

= 현재 대운동장과 주차장 아래는 현재까지 묻혀 있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악취는 심각하다. 최근 소각로가 가동돼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엔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위 자연대 건물까지 올라오곤 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여전히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생협이 생각하고 있는 왕산 쓰레기 문제의 대안은 무엇인가

= 분리수거의 실시다.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그 쓰레기를 소각로에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 한양대와 성균관대와 같이 분리수거를 사회봉사학점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한가지 학생, 교수,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인캠퍼스의 환경을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분리수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문제다.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아 용원직 직원들이 일일이 분리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국 총학생회 선거결과

투표율 저조·부정시비 등 혼탁선거

자주적 학생회 전국 90개대학 당선

지난 11월 중순부터 일제히 선거에 들어가 한달여간 대학가에 잔잔한 파문을 일게 했던 96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27.8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끝나면서 96년 학생회 운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각 대학 총학생회는 12월 1일 현재 1백10개 대학에서 선거가 마무리되어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당선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주적 학생회 계열이 연세대와 부산대, 전남대를 비롯한 90개 대학에서(81.81%) 당선돼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했다. 지난해 15개 대학에서 당선되었던 비운동권 학생회 후보의 경우는 현재까지 홍익대와 관동대 등 9개 학교에서 당선되었으며, 학생연대를 비롯한 민중민주 계열 학생회 후보는 항공대와 한신대 등 9개 대학에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7개 대학을 석권했던 21세기진보학생연합(21세기) 후보는 대구경북지역의 금오공대와 서울교대에서만 명맥을 유지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평균적으로 55-6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는 유권자 1천1백53명의 학생 중 무려 1천83명이 투표에 참가해(94%)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경북산업대는 유권자 9천2백64명 중 4천15명(43.4%)만이 참가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선거분위기가 침체됐다'며 저조한 투표율을 드는 경우도 있으나 부산대처럼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한 곳은 61.13%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에 관성적인 모습을 보였던 곳은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학생운동의 존폐위기'라고 보는 것은 섣부른 관단일 수 밖에 없다. 생활·학문·투쟁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선거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후보는 전남대학교 정명기(해양 4)·이형민(영문 4) 당선자로 총투표자 1만2백99명 중 8천5백41표(82.94%)를 얻어 당선되었다. 부산대 김화섭·김등윤 후보는 6천5백9표를 얻어 상대후보와 표차를 무려 4천3백표나 기록했다. 20-30여표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학생회는 항공대가 37표, 강릉대 26표, 충주산업대 27표, 광주교대 23표, 홍익대 39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반면에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1백여표, 충남대 1백30여표 차이로 결선투표를 치렀으며 비운동권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청주대의 경우 찬성 1백30여표, 반대 2천3백여표를 받아 낙선했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예년과 달리 혼탁한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다. 성대나 고대에서 대리투표와 2장이 겹쳐진 투표용지가 나오는가 하면 인제대, 부산외대, 삼척산업에는 폭력사태로 소란이 있었다. 서울산업대 한 후보는 선거출마를 포기했다. 선거운동원들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성숙한 선거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갈 것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사회단신

총학선거에 깡패까지 동원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학생회 선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잡기 위한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화) 삼척산업대에서 제5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도중 기호 2번 후보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삼척산업대 총학생회 선거는 운동권인 1번과 기존 총학생회를 운영해 온 비운동권인 2번이 경합을 벌여 기호 1번이 1천2백20표를 얻어 기호 2번을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기호 2번 측에서 선거인명부를 검사한 결과 총표수 중 20여표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때 역대 총학생회장 4명과 폭력배들이 개표장에 난입, 폭력을 휘둘러 합의서를 즉석에서 작성해 강제로 기호 1번이 서명하게 했다. 게다가, 개표장을 지키고 있던 학생처 직원들과 선관위도 이러한 폭력사태를 묵인하고 무효표를 유효화하기 위해 선거시행세칙을 바꿔주는 등 비운동권인 2번 후보에게 편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기호 2번측은 지난 19일(토)에도 다수의 폭력배들을 동원해 학생회관에 들어가 신문사와 방송국, 동아리방의 기물을 부수기도 하였다.

삼척산업대 신문사 편집국장 정유성군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들을 대표해야 할 총학생회장을 뽑는 자리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권력암투의 장으로 전락했다"라며 유감스러워 했다.

이외에도 고대, 성균관대, 서울대, 숙명여대, 부산외대, 인제대 등에서도 혼탁선거의 양상이 드러났다. 가뜩이나 학생들의 관심밖에 있는 총학생회가 이제는 학생자치기구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조차 얻을 수 없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안기부 간첩사건 조작 진상규명 공대위 결성

최근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을 비롯한 28개 단체들은 지난 30일(목) '안기부 간첩사건 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하였다.

전국연합의 고상민씨는 "공안탄압은 집권세력이 재야민주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안정적 재집권을 하려는 것이다"라며 "공대위는 이를 막아내는 기구가 되고자 한다"며 공대위 결성의 동기를 밝혔다. 공대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신문을 제작·배포하기로 하는 등 공안탄압 사건의 진위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토)에는 종묘공원에서 '5·18 특별검사제 도입과 공안탄압 중지'를 위한 집회를 가졌으며, 내일(5일)은 안기부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회의·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총선과 정권 위기 때마다 조성되는 공안정국에 대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이제까지 그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도 공안탄압이 시작돼 이천재(서울연합 의장)씨 등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 인천 노점상 이덕인씨 변사체 발견 사건

'노점상의 피'로 조성되는 위락시설

이덕인씨, 강제철거 중 온몸에 피멍든 채 발견돼

지난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 인천 아암도 앞바다에서 상의가 벗겨지고 손이 밧줄에 묶인 시신 한구가 발견됐다. 이 시신은 장애인노점상 이덕인(29세)씨로 지난 24일(금) 노점상 강제철거로 인해 25일(토) 남부경찰서에 연행된 이후 실종됐다. 이 의문의 사건은 지난 달 24일(금) 오전 경찰 1천4백여명과 철거깡패 4백여명, 인천시청과 연수구청 직원 3백여명 등 총 2천여명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인천시 아암도의 노점상을 강제철거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8일(화)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된 장애인노점상 이덕인씨의 시신모습이다. 시신이 3일만에 물속에서 발견됐음에도 익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인천시 당국은 위락단지 건설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며 인천시내 2백여곳에서 일제히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에 노점상들은 즉각 반발하고 10미터 높이의 망루에 올라가 강제철거에 맞섰으나 경찰의 강한 저지에 밀려 결국 25일(토) 밤 11시 망루에서 탈진환자 등 12명이 내려와 남부경찰서에 연행됐다. 그 중 이덕인씨가 실종됐다.

경찰은 고 이덕인씨의 시신을 강제부검하고 사인을 익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발견됐을 때는 손이 밧줄로 묶인 채 얼굴과 팔, 목, 허리 등에 피멍자국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물에 불은 흔적도 전혀 없었다. 단순 익사로 보기엔 너무나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다. 게다가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새벽 5시경 1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이씨의 시신을 강제로 탈취하였으며 이덕인씨의 친형인 이덕창씨를 강제로 끌고가 시신을 부검했다. 이덕창씨는 경찰에 구타당한 뒤 부검에 동의하는 지장을 찍었으며 지금은 입원 중이다.

아암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만형씨는 이에 대해 "고인의 사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부검과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이후 대국민 선전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철거로 인해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연수씨 등 총 11명이 구속됐으며 인천의 1천여명의 노점상 가족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됐다. 위락단지의 조성이 1천여명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인지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미 1차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착실히 법관의 꿈을 키워가던 이덕인씨의 소망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지게 돼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제2회 POSCO철강 논문상

새로운 생각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철강한국의 새 가능성을 제시할 대학인 여러분의 젊은 지혜를 찾습니다.

1. 응모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2. 응모서류
●논문 : A4용지 20매 내외, Word Processor 작성 (논문요약본 4매 별도 제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3. 논문주제
- 아래분야중 본인 택일 주제선정
●사회과학 : 철강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발전방향, 국제화방안, 신노사문화 정립 등 일반주제
예시)통일한국에 대비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방향
●철강기술 : 금속재료, 컴퓨터, 제어계측, 강구조, 엔지니어링, 에너지, 신소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주제
예시)금속재료 : 신소재 개발동향과 소재로서 철강의 위상강화방안

4. 시 상

구 분	편 수	부 상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부상 1,000만원
우 수 상	2편	●상장 및 부상 각 500만원
장 려 상	3편	●상장 및 부상 각 300만원
입 선 작	5편	●상장 및 부상 각 100만원

●입상자에게는 포항제철 및 계열사 입사 희망시 우대조치
●논문응모자 전원에게 참가 기념품 증정

5. 논문제출
●제출기간 : '96. 2.15 ~ 2.29(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 (135-777)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2 포스코센터 포항제철 채용팀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접수

6. 기 타
●응모작품은 창작물로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함.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작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자체간행물에 활용할수 있는 권리를 가짐
●기타 사항은 포항제철 채용팀으로 문의바람 (Tel : 02-3457-1600)

포항제철

프랑스語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와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caise
'96. 1. 2월 학기개강 : 1.3(수)

BEF Ⅰ Ⅱ, MA Ⅰ Ⅱ, NSF Ⅰ Ⅱ Ⅲ, AP, ARC, ESP Ⅰ Ⅱ,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6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 학 상 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심하세요.

'96 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 강남
taegu ☎ (053) 255-4630 (대구)

프랑스語와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600여개의 연합교)

Alliance Francaise

세계경영 우리기술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들이 고등기술연구원의 핵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은 신학연협동의 세계적 본보기로 전력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의 석학들과 더불어 전문지식과 기술경영 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인연구센터에서 기술대우 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 연구분야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무선통신 및 PCS, DSP, ATM, 레이저 및 광학기술
생산기술 기계, 전기·전산, 금속(용접, 성형, 가공), 제어, CIM FMS, CAD CAM, ASIC설계, 전기,모터설계 및 전력전자)
자동차기술 엔진, 트랜스미션, 동력학, CRASHWORTHINESS, 얼유체, 연소, 구조해석, 전기·전자제어, 소음·진동
전력에너지 화공(석탄가스화, 공정제어), 전기·전자, 계측제어) 재료(고온내식), 핵공학·기계 (THERMOHYDRAULICS)
전자재료 전기·전자(반도체 재료, 디스플레이 소자), PHOTOPOLYMER, 진공시스템 및 박막 PROCESS, 형광체
환경기술경영 환경산업(수처리, 대기, 폐기물), 기술정보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연구관리, 기술교육, 기술사업 및 기술기획

* 위 연구분야에 대하여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고안리 400-2 용인우체국 사서함 20호 (우149-800)
TEL. 0335) 30-7114 FAX. 0335) 30-7111
E-mail : iapark @ iae2000. iae. re. kr

□ '96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분석

5·18 등 정치투쟁으로 대중적 지지 얻어

현실적 정책과 실현 가능성, 후보선택의 잣대

노태우씨의 구속 등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치뤄진 96년 총학생회 선거는 '95년을 걸어왔던 학생회가 앞으로 벗어야할 껍질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이었다. 그러나 높지않은 투표율,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쟁점 등은 선거에서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줬다.

올해 학생회 선거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자주적 학생회 계열의 대거 당선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5·18, 비자금 문제 등 국민적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고조되는 객관적 조건의 작용이다. 학생들은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당면 정치적인 사안의 해결에 앞장선 자주적 학생회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처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말리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로 학생회가 학생들을 주인으로 세우고 그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조직이기를 원하는 정서가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로 부산대 당선자측의 "거의 모든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허히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생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달려갔다"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선거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후보를 판가름한 중요한 잣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전국의 대학들이 학생회 선거를 치뤘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주적 학생회계열이 90개 대학에서 당선돼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의 특징으로 민중민주계와 비운동권의 약세를 들 수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직위원회 조동해군은 "학생들은 생활상의 불편함만으로 공감하지는 않는다. 교육·정치활동을 비롯해 학생회 운영, 학생회 대중사업 등 생활·학문·투쟁 전 영역에서 현실성 있고 대안있는 정책과 낡은 틀을 벗으려는 진지한 모색에 호응을 보내는 것이다"고 말한다. 연세대의 한 정책간부는 올해 민중민주계열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나 5.18 등의 정치투쟁에 부실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10년만에 단일후보를 낸 전남대에서는 지난해처럼 경실련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경실련의 정책이 학생들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번째로 새로운 시대의 이념이 화두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각각의 후보들은 '희망만들기' '가치창조' '사람사랑' '주류질서 전복' 등의 모토를 내걸고 학생들을 묶어가는 실천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생회 사업 진행의 실천과정에서 검증돼야 할 것이다.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모든 후보에게 공통된 공약은 학부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학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었으며 이외에도 문화·여성의 분야와 학생회 운영 등에서도 공통분모가 보였다.

이제 한총련은 90년대 들어 다양한 실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3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도에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안정적인 질서를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 이후 노학연대의 조직적 결합을 가속화하고 개별 학교 단위로 진행되었던 학원자주화 운동을 대정부투쟁으로 승화시키고,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우들속에 뿌리내리는 건강한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아 전대협이 가졌던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회복·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전국대학신문 공동기자단

□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후의 과제

"5·18특별법 제정 아직 맘 놓아선 안된다"

지난 11월 24일(금) 급작스런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현 정부의 깜짝쇼 완성판이었다.

그러나 24일(금) 이후로 온통 언론과 국민들은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두환·노태우 등 당시 신군부 핵심들의 처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염원은 짓밟히고 왜곡된 우리의 슬픈 역사가 바로 잡히기를 진정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93년 5월 13일 5·18특별담화문을 통해 "5·18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 더 이상의 한풀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을 배신하였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여만에 자신의 발언을 완전히 뒤엎는 현 행위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위한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애국심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단지 자신과 그의 패거리가 살기 위한 계략일 뿐이다. 총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물귀신처럼 달라붙어온 각종 대형사고와 참사, 잦은 국정의 실책, 5·6공세력과의 불화속 동거 등으로 "퇴임후 자칫 전두환씨처럼 청문회에 끌려나오지 않을까,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속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집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속에서 몰려 겨자먹기식으로 '5·18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도출된다.

우선 여당을 비롯한 현 정치권이 5·18특별법을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떠도는 내용을 보자면 어쩔 수 없이 5·18특별법은 제정했지만 대충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술수가 엿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 만료 결정을 내리려는 것에서부터 검찰이 "노태우씨가 비자금으로 잡혀가는 등 기존과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유치한 논리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것까지 모두 5·18특별법으로 인한 처벌의 범위를 줄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몸짓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향을 절대 느슨하게 바라봐서는 안된다.

지난 20일(토) '5·18 특별검사제도 도입과 공안사건 조작 규탄' 집회가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한총련 국회 앞 농성단을 비롯하여 5백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가해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 및 5·18특별검사제 도입, 안기부의 총선을 앞둔 간첩단 조작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유정 기자

이제 5·18특별법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여야가 모두 특별법을 어떠한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여 5·18핵임자들을 모두 법적으로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본질을 파악했을 때 그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을 위한 객관적 기구의 마련을 위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반드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제해야 한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광주학살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 그들이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5·18문제가 현 정부의 깜짝쇼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고, 정치권에 포진하고 있는 5·18주범들과 동조자를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의 여부는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안태원

〈5·18국민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민주노총을 알자⑤

└ 민주노총의 과제와 전망

정치세력화는 사회개혁 위한 필수 과제

11월 23일,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나 정부는 그 다음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요청한 노동부장관 면담도 거절했다. 이로써 민주노총 출범 전부터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아래 권영길위원장을 구속하고 지도부를 수배하는 등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12월 1일, 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총국 구성을 일차 완료하고 합법성쟁취투쟁과 96년 임단투, 총선대응, 5·18특별법제정 등 출범 원년의 사업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합법성 쟁취 및 노동악법 개정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에도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문제이며, 합법 단위노조들이 구성한 노동단체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모두가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악법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제한하는 악법조항의 철폐가 곧 민주노총의 합법화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법적 소송과 ILO등 국제기구에의 제소 등의 기본적 대응과 함께 노동악법개정투쟁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당면한 사업으로 노동악법에 의한 구속, 수배 지도부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투쟁을 전개하고, 민주노총탄압에 앞장서는 노동부에 대한 일체의 대화거부 등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고, 96년 상반기 총선 등과 결합하여 노동법개정 요구를 여론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활 및 사회적 지위의 개선

생활임금과 주 40시간제의 쟁취,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추방 등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개선투쟁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고용불안의 해소와 노동통제강화 저지, 임금차별철폐, 현장에서의 남녀평등 실현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 주택, 의료, 세금, 물가, 토지, 금융제도 등 제도정책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쟁취할 것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재민주세력과의 굳건한 연대에 의해 쟁취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연합, 정당 등과의 제반 수준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강구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96년 총선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확대

민주노총은 우선 민주노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많은 노조들을 가입시켜야 한다. 일차적으로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는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는 노조에 대한 지원과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사업 등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확대는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직률이 15%정도의 낮은 수준인데 그 결정적 이유는 기업별 노조체계이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포괄하기가 불가능한 50인이하의 노동자가, 6백만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산별중앙 조직으로의 재편

민주노총이 산업별 조직을 근간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산업별 조직이 만들어진 곳도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별 연맹이다.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별체계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내용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산별 연맹차원의 조직이라해도 제조업 노동자들은 금속과 자동차가 소산별 연맹으로 출발하고 있을 뿐이다. 금속전체로의 조직화와 화학, 섬유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공공부문노동자, 운수노동자들의 산업별 조직화도 민주노총의 과제 중의 하나다. 이상과 같은 산별조직의 강화를 위해 96년 임단투 과정에서 산업별 공동요구안을 제출하고 산업별 차원에서의 총파업 또는 적절한 수준의 공동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김태연 〈민주노총 집행위원〉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해외연수편 - 에필로그

세계로 가는 엘리트, 함께 가는 LG

자동차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
화장실에 휴지는 없고 수도꼭지가
있는 나라,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나라, 세끼를
모두 밖에서 사먹는 나라, 껍은 팔지
않고 술·담배가 아주 비싼 나라…

특히 처음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새삼 세상이 넓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기후와 피부색은 물론이고, 종교와 언어, 풍습 등 너무나 다른 생활방식을 경험하면서 처음엔 당황하기도 하지만 차츰 이해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여행의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강인한 그 발과 뜨거운 가슴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밟아보고 끌어안아 보십시오. 머리는 더욱 커지고 가슴은 넓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젊은 그대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키우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매년 전국에서 1천명의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각종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하며, 여름방학 동안 그룹 해외연수 및 개인 배낭여행도 보내드립니다.

● 올해로 처음 실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여름방학 동안 180명의 대학생들이 동남아 연수 및 각국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G

외대와나

정보화 외대(?)

최 영
〈일본어 77, 본교 신방과 교수〉

인터넷, 정보고속도로, 정보화 사회.

요즘 한창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들이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이와 관련된 서적들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정보화 열풍이라 할 만하다.

정보와 관련된 산업의 비중이 기타 산업과 비교해 우위가 될 때 그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21세기의 초입에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지 궁금하다. 기업은 발빠르게 정보화의 대세에 잘 적응하는 것 같다. LAN(근거리 통신망)이다 CAL(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이다 하여 저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대학은 어떤가? 이러한 정보화의 열풍속에서 외대는 어떠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필자가 정보화의 물결을 처음 겪어 본 것은 80년대 중반 대학원 건물 1층 전자계산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였다. 전자계산소 옆에 딸린 조그마한 방에서 단말기를 통해 데이터를 통계처리하여 석사논문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의 이야기이다. 그 후 필자는 해외유학을 떠났고 2년전에 돌아와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됐다.

10년전 전자계산소의 대형 컴퓨터를 통해 익힌 조그마한 컴퓨터 지식은 후에 필자가 유학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고(그 알팍한 컴퓨터 통계처리 지식덕택에 연구조교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정보화의 거센 물결을 자연스럽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정보화의 지혜란 다름아닌 두려워말고 부딪쳐 보는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 모두 참여해 봐야만 알 수 있다.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혀 나가야 한다. 다행히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보화의 물결을 어느 정도 체험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단순히 과제물이나 작성하고 게임이나 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10년전 필자처럼 단순히 통계처리나 하고 아래한글로 과제물이나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컴퓨터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이다. 그러기에 인터넷 열풍이 불고 윈도우95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임과 달리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과 연결해 주는 네크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가 각종 통신망에 접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컴퓨터의 기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정보화의 물결속에 자연스레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외대의 여건은 지금 어떤가? 10년전 필자가 혜택을 보았던 것만큼 95년의 외대인은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혜택을 받고 있는가? 과연 정보화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즉 두려움없이 부딪쳐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지 궁금하다.

10년전에 컴퓨터를 통해 통계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외대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교내 랜 구축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 빨리 학생회관에서 교수의 연구실로 전자편지가 오가고 도서관의 신간목록을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크로니클

준비~땅!!!

○…준비됐나요!?

교내 식당아주머니들, 천지신명님께 바칠 온갖 산해진미와 돼지머리 준비됐나요?

1만3천 외대인들, 우리 외대 잘 나가게 해달라고 정성들여 빌 준비는 됐나요? 이번에 새로 뽑힌 이문·왕산 힘쓰이들, 다가올 쥐띠해 마음껏 힘 발휘할 준비 됐나요?

마지막으로, 천지신명님께서는 우리에게 풀어주실 빵빵한 복주머니 준비하셨나요???

〈정〉

○…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개헌논의가 하루만에 백지화됐다는 소식에 크로니클자 시 한수 읊조리니.

'…개헌'이라고 쓰느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저 긴 하루가 지났느라고만 쓰자.

긴긴 특별검사제 도입, 온 국민 함성 줄줄이 하늘을 찌를 듯하기에 도입 못한다는 말은 감히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 도입할 수도 있느라고만 쓰자.

〈형〉

○…매년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부풀어만 가는 그대는.

매년 총학생회장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그대는, 게다가 올해 다이어트에 너무 성공하게 만든 탓에 구급차에 실려가게 만든 그대는,

올해도 역시 예년의 약습을 따라갈 듯한 낌새를 …보여주는 그대는… 등록금!

〈진〉

○…양치기 소년 안기부.

안기부가 김태년, 박충렬씨등 재야 운동권 지도자들을 간첩접촉 혐의로 잇달아 구속했다는데… 아이구, 이번에도 조작사건이라는 냄새가 물씬물씬,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안기부가 진짜 간첩을 잡아도 국민은 안 믿어. 그 이유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를 읽어본 사람은 다 알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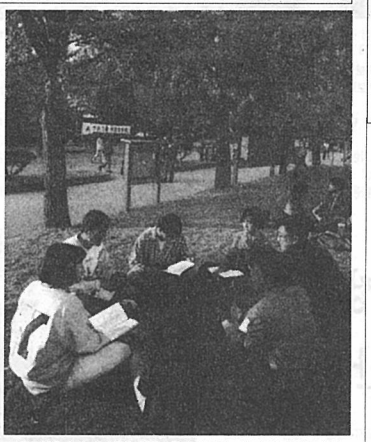
〈병〉

안기부, 양치기 소년

□ 5·31 교육개혁안을 진단한다 ⑥ - 총괄평가 ②

구조적 병폐, '대수술' 시급

교육현장 주체를 중심으로 세워야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한국교육의 역사적·구조적인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철학적 원리 재고 돼야

첫째로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敎育之 百年大計)'이라는 말에서 보듯, 교육의 의의는 고립된 개별 개체로서의 개인보다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지금 세계는 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무한경쟁 속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속의 한국'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민족의 이익'을 정책수립의 잣대로 잡아야 한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세계화'를 철학적 원리로 삼아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도 다가오는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남북간 교육분야의 동질성 회복과 통합체제 구축을 지금부터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인재육성'의 원리를 내세워야 한다. "자녀를 올바른 인격과 뛰어난 지식 및 기술을 소유한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부모의 모습은 한국의 전통적 미덕이다. 이런 측면으로만 본다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교육열'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수한 뜻의 학부모 개개인의 높은 교육열은 훌륭히 악용당해 왔다.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교육재정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재 육성'은 국가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선 교육개혁을 무한경쟁체제를 이겨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삼고 정부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하원(94년 3월 23일)과 상원(94년 3월 26일)에서 '목표·2000 : 교육 미국법(Goals 2000 : education America Act)'을 통과시켰을 정도다. 영국도 일명 '21세기 교육과 훈련에 관한 보고서'라 불리는 'White paper'를 만들어 2000년대의 영국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올바른 인격과 뛰어난 지식 및 기술을 소유한 '훌륭한 인재·양성 사업'인 교육이 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무한경쟁체제속에서 국익 우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과제가 된 것이다. 이와 비교할 때 '시장과 자본'의 원리에 입각해 경쟁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교육개혁안은 한국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것을 직수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진 외국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셋째 '사랑과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의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8위이다. 국민 1인당 평균소득 1만달러 시대인 현 상황에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을 벗어나 부의 분배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랑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다. 교육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5·31 교육개혁안의 비전(Vision)이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되고, 열린교육체제의 구축을 기본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열린교육체제는 학위수여의 열림만 의미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무의미하다. 더구나 '시장과 자본'의 원리 및 '경쟁과 수월성'의 원리를 앞세워 학교끼리, 교사끼리, 학생끼리 무제한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오직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시장 속에서 남을 이겨야만 '승리자'가 되는 현실에서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교육분야에서 '사랑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과 무관하며, 도리어 그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 '사랑과 평등'을 실현하는 지름길은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장 및 도시서민의 자녀 등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하며, 교육소외와 입시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있다.

교육주체와 국민을 개혁의 중심으로

교육개혁은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을 위한 교육개혁이어야 하며, 또 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에서 배재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전국 대학노동조합연맹·대학강사 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개혁 추진도 거기에 필요한 교육재정과 법적 및 제도적 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되, 실질적인 추진의 주체는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현성과 구체적 실천계획 담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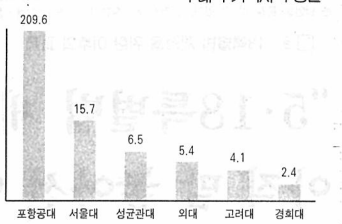
교육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미빛 환상일 뿐이다. 구체적 추진계획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방향이 옳고 구체적 추진계획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실현 가능한 교육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안은 역대 정권이 이를 통치수단으로 삼은 나머지 썩은 거름더미 위에 비단천을 덧씌우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부문에서 빠지지 않고 소위 '교육개혁안'이 발표됐다는 사실은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교육의 역사적·사회구조적 병폐를 뿌리채 뽑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새로 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과 추진방법 및 일정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내놓고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현장 주체들과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창의적인 지혜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곽근영 기자

□ 그래프로 보는 외대 교육지표 ⑥

— 각 대학 기숙사 수용률



〈기숙사 수용률 (단위:%)〉

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내용과 함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학생들이 정원의 1/3을 차지하는 본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숙식문제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대학 시설 중 후생복지시설에 포함되는 기숙사에 대해 총학생정원의 15% 이상 수용능력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교육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는 이 기준령에 턱없이 모자라는 7백 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모현학사가 용인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다. 모현학사 수용률 5.4%는 1995년 국회제출자료 기준으로 표본 101개 대학중 60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의 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저렴한 숙식을 제공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24시간 교내에 거주함으로써 학업을 생활과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는 장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미국대학에 비해 기숙사 시설준비가 터무니없이 미약한 실정이다. 기숙사 시설은 학생들의 시교육비부담 뿐만아니라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까지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투자가 적은 본교는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하루빨리 확충해야 한다.

자료: 교육백서 3, 사회정책연구소

비둘기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행정고시반 입실 시험이 있습니다.
과목: 헌법, 영어, 한국사
때: 12월 9일(토) 10:00-12:00
※수험생은 이른 9시까지 입실
곳: 3306

〈행정고시반 실장〉

· 요르마 율린(Jorma Julin) 핀란드 대사 초청 강연회가 열립니다.
제목: Filand in the world of today
때: 12월 4일(월) 늦은 4시
곳: 소강당

〈스칸디나비아어과 학생회〉

· 아랍어과 4학년 사은회가 있습니다.
때: 12월 5일(화) 늦은 6시
*학생들은 늦은 5시까지 도착 요망

〈A4 알림이〉

· 중국어과 휘모리 일일호프가 있습니다.
때: 12월 4일
곳: Yes Bash
*꼭 오세요.

〈중국어과 휘모리〉

· 야학 교사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파랑새 야학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치한 곳은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맞은 편 이구요, 수업시간은 늦은 7시 30분부터 입니다.

〈파랑새 야학〉

· 스키 강습회가 열립니다.
일정: 12월 15일(금)-12월 18일(월)
곳: 진부령 알프스 스키 리조트
참가비: 스키 소지자는 17만원
스키 미소지자는 19만원
접수처: T. 961-4584
호출 012-316-5604

〈외대 스키부〉

· Hitel에 '외대 사랑'이라는 외대인을 위한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김이 모락모락나는 얘기들을 나누어 봅시다.
*Go Aintel을 찍어주세요.

〈착한 비둘기〉

· 제 27회 통역협회 동계 외국어 강좌가 열립니다.
강의 과목: 외대에 개설된 모든 언어 기간: 1996년 1월4일(목)-2월5일(월)
시간: Time 1 아침 9시30분-10시50분
Time 2 아침 11시30분-12시20분
Time 3 늦은 1시 - 늦은 2시
수강료: 3만원 (교재비 포함)
접수기간: 12월18일- 내년 1월4일까지
접수처: 통역협회실(학생회관 203호)
T. 968-6377, 963-688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역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통역 협회〉

□ 축하합니다

· 군대에 갔다오자마자 다시 과회장을 결의한 92학번 이동헌 형에게 무한한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잘 나가는 영교과를 만들어 주세요.

〈영교과 일동〉

왕산골

□ 축하합니다

· 사학과 김현제군의 군제대 100일을 축하합니다.

〈사학과 학생회〉

· 아프리카어과 86학번 김현준 선배님의 행정고시 2차 합격을 축하합니다. 잘먹고 잘 사세요.

〈아프리어과 학생회〉

· 제 17대 총학생회 건준위 발족식을 축하합니다. 사랑받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착한 비둘기〉

· '96 러시아어과 2학년 과대, 부과대로 뽑힌 김관우군과 임성은양 축하드립니다.
*내년 한해 열심히 하세요.

〈러시아어과 알림이〉

· '96 전진 독일어과 과회장으로 당선된 90학번 류현수 학우에게 기대와 함께 축하를 보냅니다.

〈독일어과 일동〉

□ 찾습니다

· 지난 일요일(11월경) 1113번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연락처: 015-299-7642
후 사: 상품권 5만원

'비둘기 철판' 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 · 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재수강 신청 절차 변경돼

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

96년부터 시행될 교육과정개정에 따라 지난 30일(목)부터 재수강에 대한 부분이 일정정도 변경된다.

우선, 재수강 신청 절차상 지난학기까지는 재수강과목은 수강신청서에 함께 작성했지만 96년도 1학기부터는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성적표를 첨부해 각 단대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재수강 신청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1학년 교양선택 교과목의 재수강

1) 교과목명이 동일한 현 1학년 교양 교과목중에서 재수강 가능

2) 개론에서 입문으로 교과목이 바뀐 경우도 재수강 가능

△기존 1학년 교양필수 교과목의 재수강

1) 체육:체육영역중에서 현 1학년 교양 교과목중에서 재수강 가능

2) 한국사 영역:교과목명이 동일한 현 1학년 교양과목중에서 재수강 가능

3) 국어작문:상동

4) 제2외국어:

① 상동

② 외국어 영역에서 가능하며, 제2외어1은 재수강 할 수 없음

5) 교양영어1:재수강할 수 없음

△계열기초 교과목의 재수강: 교과목명이 동일한 현 1학년 교양교과목중에서 재수강 가능하며, 교과구분 코드는 교양선택으로 바뀜

△2·3학년 교양교과목의 재수강

1) 교과목명이 동일한 현 2·3학년 교양교과목중에서 재수강 가능

2) 1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더라도, 2·3학년 과정에서 재수강토록 함.

△기존 1학년 과정에 개설되어 있던 교양필수 교과목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교과목의 학점만큼 교양선택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반드시 강의시간표 학점대로 재수강하여야 하며 학점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양캠 각국 대사 강연회 열려

주한 인도·핀란드 대사 초청

○…인도어과는 지난 1일(금) 11시에 '96, 인도 총선에 대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인도 대사 샤스한크(Shashank)씨 초청 강연회를 신강의동 207호에서 열었다.

서남아 연구소가 주최한 이 강연에는 양캠퍼스 학생 약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회장 이호영(3)군은 "부족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높았다"라며 "이 행사를 통해 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발전상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요르마 율린(Jorma Julin) 주한 핀란드 대사 초청 강연회가 오는 4일(월) 대학원 소강당에서 스칸디나비아어과 주관으로 열린다. '세계속에서 오늘날의 핀란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핀란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소개가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스칸디비아어과 박노호 교수는 "언어학적으로 핀란드와 스칸디나비아는 관련이 적지만 같은 북극권으로서 지역학적인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초청강연의 의의를 밝혔다.

설레임과 포부로 96년을… '조국과 왕산을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를 모토로 한 제17대 총학생회 건준위 발족식이 지난 30일(목) 신강의동 207호에서 열렸다. 96년도 왕산발전의 첫발을 내딛는 설레임과 포부, 결의를 다지게 된 이 자리에서는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정유정 기자

총학, 교양관 벽면 시계 설치 예정

조경산업 활성화 계기 마련

용인캠퍼스 제16대 총학생회는 오는 9일(토)부터 교양관 앞쪽 벽면에 본교 마크가 부착된 직경 3.5m규모의 대형시계 설치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시계탑 설치는 부족한 조형물을 세우자는 총학생회내부의 의견과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총학생회측은 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도서기증 제안도 많았으나 현재 도서구입비가 남아있고 도서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 대형시계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임성은(동학·아랍어 4)군은 "이는 총학생회가 외부유출·운영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이 이어져 용인캠퍼스에 부족한 상징물이 계속 세워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학당국도 조경사업에 동참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생협, 조합원 정기총회 열려

제2대 학생위원장, 김명선군 당선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는 지난 30일(목)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관 가건물에서 제2차 정기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1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총회는 △사업보고 △회칙개정 제안 △당면사업 제안 △질의 및 응답 △우수과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는 제2대 생협 학생위원회 위원장 선거 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단독후보로 출마한 김명선(동구·항가리어3)군은 94.7%의 찬성율로 제2대 생협학생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김군은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왕산을 만들겠다"라며 "조합원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생활복지에 한 획을 긋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올해 학생위원장 엄외준(인문·사학 4)군은 "한해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계절학기 접수 7일부터

국어작문 등 15개 교양과목 개설

95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이 오는 7일(목)부터 11일(월)까지 3일간 각 캠퍼스 교무과에서 시작된다.

오는 18일(월)부터 주 6일, 총 16일간 진행될 계절학기는 서울캠퍼스 강의실에서 실시되며 국어작문, 국민윤리, 문화인류학 등 15개 교양과목이 개설된다.

수강신청 최대학점은 6학점이며 계절학기 수강생은 95년 2학기 재학생에 한한다.

한편, 7개학기 총 취득학점이 134학점(법학과 144학점)이상인 학생은 그 해당학기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교무처 관계자는 "수강 희망인원이 30명이상인 교과목에 한해 개설하게 됨으로 수강 희망자는 빠짐없이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영정보 대학원, 동계 특강 개최

외대 위상 높이는 계기 마련

동계 컴퓨터 특강이 오는 20일(수)부터 2월 14일(수)까지 8주간 경영정보대학원 학생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특강은 학부생·대학원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반·특별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반은 DOS 등의 컴퓨터 일반지식을, 특별반은 MS-WORD, MS-EXCEL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강사들은 본교 대학원생이 맡으며, 수강료는 하계특강에서와 같이 강사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번 동계특강을 준비한 교육지원부장 송인혁(동대학원 2학기)군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대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밝혔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사람

□ 신체장애를 극복한 김재욱군을 만나

"다니기는 불편하지만 외대를 사랑합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계단이 많아 강의실 이동이 너무 어려워요"라며 신체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학교생활하는 김재욱(서학·영어 1)군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두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김군은 본교 체코어과 김규진 교수의 아들이다.

입시 때 다른 대학도 붙었지만 장애라는 이유때문에 아버지 김교수는 "제욱이가 무사히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더 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졸업후 영어 번역사가 되는게 꿈이라고 한다. 아들과 함께 나란히 등교하는 김교수는 "몸도 성치못한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줘 함께 외대를 다닐 수 있다는게 덧없이 자랑스러웠지"라며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던졌다.

오늘도 아픈 다리를 휠체어에 의지하고 강의실을 이동하고 있을 그를 생각해 본다. 계단이 무척이나 많은 왕산에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안재민 수습기자

대학단신

서울

신방인의 밤 열려

올해로 창립 17주년을 맞는 신문방송학과는 지난 25일(토) 교수식당에서 신방인의 밤을 개최했다. 선후배 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과동문회 재건을 위한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와 선후배 소개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최형욱(2)군은 "시기상 여러 선거가 겹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라며 준비상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내년에는 동문수첩을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동문회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베트남어과, 동문인의 밤 개최

동문간의 유대증진을 위한 베트남어과 동문인의 밤이 지난 3일(일) 대학원 311호에서 열렸다. 재작년에 이어 2년만에 열리게 된 이번 행사에서는 후배들의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형식을 탈피해 선후배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과회장 김현호(3)군은 "2년만에 열리는 행사라서 준비 중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내년부터는 매년 이런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인

인도어과, 동문인의 밤 개최

교수·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유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도어과 동문인의 밤이 지난 2일(토) 대학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총동문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서 학번별 장기자랑·새내기 축하공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과회장 이호영(3)군은 "동문들의 주소파악이 분명치 않아 준비과정에서 힘들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내년에는 학생 모두가 조그마한 과사업 하나에도 주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과가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인어과, 신문전 열어

마인어과는 과 신문 마인월보에 나타난 사회·학내문제 변화를 통하여 외대인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일(금)까지 어문관 로비에서 마인월보전을 개최했다.

88년 4월 10일 창간호부터 95년 11월까지 마인월보를 사회·학내·과소식 면으로 나누어 전시한 이번 행사는 본교 최초의 과 신문전이다.

이와 관련 편집국장 신우식(2)군은 "창간이래로 처음 여는 전시회라 장소섭외·주제선정 등 모든면에서 힘들었다"라며 "편집부원들이 본교 최초의 과 신문임을 자부하면서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신문을 제작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어과, 시사토론회 열어

아프리카어과 학회 시사(토론학회)는 지난 28일(화) 신강의동 208호에서 '김일성은 민족주의자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3명이 참가해 김일성 북한주석이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기회주의자'라는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토론을 벌렸다.

이와 관련, 회장 박대명(2)군은 "주제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해 아쉬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현학사 입사생 모집

모현학사는 오는 15일(금)까지 96년도 입사생을 공개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모현학사 운영과에서 하고 지원학생은 주민등록등본 1통·성적증명서 1통·증명사진 3장을 운영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지원자의 학업성적 및 통학거리이고 입사확정은 서류심사후 1월 중순에 우편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외국어회화 대학생과정 모집

본 연수원에서는 1996년 전반기(제25기)대학생 어학강좌를 개설합니다.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Native Speaker 강사진들이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1.모집학과 인원 및 시간

과 목		수업시간	단계	수업요일	학급정원
영어회화	저녁반	17:30~19:20	(1,2,3,4)단계	월,화,목,금	15명

• 제25기: 1996. 1. 29(월) ~ 4. 4(금) (10주) • 제26기: 1996. 4. 8(월) ~ 6. 14(금) (10주)

2.지원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타 대학교 학생도 수강 가능)
3.신청방법: 선착순 등록 마감
4.반 편 성: '96. 1. 20(토) 15:00 본 연수원에서 분반시험을 실시하며 분반시험 결과는 '96. 1. 25(목) 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하며 전화문의 가능함
5.제25기 등록기간 및 접수처: 1995. 12. 18(월) ~ 1995. 12. 28(금)까지 본 연수원 교학과(등록시 학생증 지참)
6.제출서류: 등록원서(본 연수원 교학과 비치), 증명사진 1매(원서부착용), 원서전형료(5,000원)
7.수 강 료
가.제25기 수강료
• 신규등록: 290,000원 일시납(교재대 본인부담)
• 재 등 록: 260,000원 일시납(교재대 본인부담)
8.기 타
가.수강연기신청: 등록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어려운 분은 개강일전에 교학과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협의하면 한 학기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함.
나.등록금반환 신청요령 및 반환
(1)등록금 반환신청은 교학과에 비치된 신청서와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2)반환금은 신청인의 은행구좌를 통하여 지급되므로 예금구좌번호를 알려줘야 함.
(3)제일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예금구좌를 이용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공제됨
(4)반환금은 반환신청후 3주지나 통장에 입금됨.
(5)위 소신청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가)등록후 개강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등록금의 85%
(나)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등록금의 50%
다.원생증 발급: 등록후 본인이 원할시 증명사진(2×3cm) 1매를 수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개강일에 발급됨.
라.교육기간이 같은 일반인과정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베트남어, 서반아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外 기타외국어 강좌도 개설됩니다.(수강료 W430,000)
마.수료증 발급 및 신청: 수료증은 총 수업시간(80시간)중 80%이상(64시간 이상)출석해야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수료생에게만 발급되며 수강기간이 끝난 후 교학과에서 신청받음
※ 문의전화: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5, 962-7119

1995년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원

호남정유 주유상품권 판매안내

우리대학에서는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산학협동차원의 일환으로 호남정유(주)와 주유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외대구성원(교직원, 학생/학부모, 동문기업체)을 대상으로 차량 및 난방용 주유 상품권을 아래와 같이 할인판매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 래

1.주유가능 종류 및 지역
1)유종: 휘발유, 등유, 경유(차량 및 난방용)
2)지역: 전국 호남정유 계열 주유소

2.판매가격: 액면가의 5%할인판매(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직원에게는 외상판매도 가능하며 봉급에서 공제함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3.상품권 종류 및 사용방법
1)종이식: 5,000원권, 10,000원권
(전국 호남정유 주유소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8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환불가능)
2)카드식: 30,000원권, 50,000원권, 100,000원권
(서울, 경기 전지역 및 지방은 시급이상 주유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카드 뒷면에 사용일자 및 잔액이 표시됨)

4.판매장소(◎표시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매장임)
1)서울캠퍼스: ◎학생회관 매장, ◎인문과학관 매장, 대학원 매장
2)용인캠퍼스: ◎교양관 매장, ◎학생회관 매장, 인문사회관 매장, 자연과학관 매장, 승차장 매장
3)동문기업체는 연구협력처에 문의
(전화 968-6976, 961-4040)

총 무 처 장

여러분 곁에는 항상 한국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금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 곁에 항상 한국장학회가 있습니다.
▷대상: 대학, 전문대 재학생
▷금액: 공납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대여장학금의 상환: 졸업 또는 수료 1년후 대여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월별, 기별 또는 일시 상환으로 함.

▶한국장학회에서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 농어촌지역 출신학생(부양의무자의 주소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금액: 매학기 100만원
▷대여금 상환: 졸업 또는 수료 1년후 대여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월별, 기별 또는 일시 상환으로 함.

▶한국장학회의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 급학교 장학과나 학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회 이사장 이 수 천

책상 한 쪽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습, 재잘거리는 학생들 속에서 이런저런 낙서를 받아적는 모습, 했벌'한 줌 못 본체 한 구석으로 떠 밀려 있는 모습. 바로 우리들 과방에서 우리의 이야기 친구 '과 일지'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옆에는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나요.
대화가 메말라가고 있는 지금, 과일지를 통해 한해 동안 학생들의 고민, 사랑, 갈등을 담아봅니다

편집자

□ 각 과 일지를 훔쳐보며

진솔한 만남의 장 '열린 일기장'

왕산

영어 '사람사랑'

서로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갈등들을 여럿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도록 합시다. 그것을 우리 당신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열걸음 보다는 열사람의 한 걸음이 더 아름다우니까요.

루마니아어 '날적이'

젊어진다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무언가를 바라는 새내기들의 눈빛 그 속에서 나는 힘이 솟는다. 이들이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한 나는 필요한 존재로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새내기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힘나게 한다.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힘이 난다. 이들만 보면 그것이 무슨 힘인지는 모르지만.

폴란드어 '일지'

과 방안이 조용하다. 나 혼자다. 간만에 온 학교는 생각대로 어색하기만 하다. 왜? 뭐땀시? 모두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한 섭하고 허·하다. 나의 2년이라는 시간을 바친 이곳.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사학 '일지'

·5·18 그날을 잊지 못하리라. 15년전 광주가 피로 물들었고 어제는 종로시내가 지랄탄 연기에 휩싸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맡아본 지랄탄은 정말 지독했다. 언니가 옆에 없었으면 난 그냥 그 자리에서 뻗었을꺼다. 우리 왕산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나중에 복 많이 받을 꺼라 믿어요.

·동기를 군대 보내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뿌듯함.

성환이가 상병 이홍렬 인가 뭔가 하는 고참을 소개시켜준다구 일요일 면회 오랬단다. 짜슥 기특하기는. 그이는 어떤 분이실까.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형구가 온다. 성라이, 성환이, 형구가 참 믿음직스러웠지. 형구야 빨리 와라 영선이는 너 온다구 아침에 목욕탕 갔다가 왔대.

포르투갈어 '일지'

끝났다. 허무하다. 빵구났다. 열 받는다. 흘러라 흘러, 세월이여. 술마시고 싶었다. 시험도 끝났고, '누나네' 가서 술마셨다. 답답했다. 괜히. 지금은 꿈이 없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험공부 해서 뭘하냐?!… 이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며 시험 때문에 허둥대겠지.

언어학 '말'

·우리과 '군인 아저씨'들에게 편지 좀 씁시다. '휴가' 나올 수 있도록.

·언니, 힘이 없어 보여요. 전 항상 언닐 보고 있단 말예요.

-그냥 나에 대해 한번 돌아보게 됐거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힘없이 빌빌거리는 거 못보겠어요.

-이젠 웃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특히나 사람들한테 조심할 꺼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말 수를 극히 줄이기로 했다. 실수 할 지도 모르니까.

언니 그러지 마세요. 언닌 웃는 얼굴이 더 이뻐요.

-내 옆에 있는 널 지켜보는 것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도 항상 밝은 네가 대견스럽다.

전 생활에 충실하면서 웃으면서 살기로 했어요. 언니도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회원

철학 '독백'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에 아직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속에서 회의를 느낀다. 저항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그 순간만을 벗어나려 한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내재되어 있지만 아직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지금도 우리의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벗어나자.

동아리 많이 많이 사랑하자. 우리, 사랑할 수 있을 때 맘껏 사랑합시다.

·처절하다. 이, 처절한 패배감은. . . 때로는 사실 아주 가끔이지만 저 물에 빠져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뛰어들지 않는것은 두려워서일까? 모르겠다. 내가 들어있지 않은 노래속에서 나를 생각한다. 비보잡이 능력보다 훨씬 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아니, 어쩌면 욕심보다 더없이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일 지도…

외대합창단 '일지'

·이렇게 4년이 지났다. 그 어느 먼곳에 가든지, 마음속에 평생을 박혀있을 그리운 이름들을 무슨 상징처럼 남기려 과방에서 보낸 시간들. 남아있는 이들이 부럽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 어느 먼곳에 있든